朝鮮日報
夕刊
十五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11.2.17 LIBRARY

左右兩派對立激化 佛政局前途暗澹

右翼團體大統領의解散令을無視하고 政府에對抗巴里到處에서左派와衝突

人心極度로不安狀態에陷入

【巴里十四日發同盟】佛國政府는 社會黨首領레옹·브룸氏의毆打事件을 契機로十三日夕刻 大統領令을 公布하야 라숑·프랑세-즈『카므로·듀로아』兩右翼團體에對하야 斷乎解散의鐵槌를 나리게되엇는데 黨派는 政府의指示를 無視하고 라숑·프라세-즈派의 領袖인모-라스氏는『大統領令은 一片의休紙에 不過하다』고解하야 機關新聞『라숑·프랑세-즈』紙를 續刊하야 斷然對抗의氣勢를 表示하고잇다 十四日早朝巴里市內到處에 左右兩黨의 小衝突이잇서서 一九三四年二月의騷擾를 想起케하야 人心은 極度로 不安狀態에 陷入하여잇다 사로首相은 右翼領袖의 逮捕를 斷行하게되지못하고 그리고 社會黨은 右翼파쏘分子의 徹底的取締를 主張하야마지안흠으로 政局前途는 全然暗澹한 現狀이다(寫眞은 르브大統領)

社會黨과王黨間 到處衝突演出

左右兩派의感情極히尖銳化

佛國의社會不安增大

【巴里十四日發電通】王黨派가行한社會黨首領레옹브룸氏襲擊事件으로因하야 左右兩派의感情은 자못 尖銳化하야 十四日에는 國內數個所에서 社會黨과王黨派사이에 衝突이 勃發되어 國內에不安한空氣가 떠돌게되엿다

鐵道公債條令 國府立法會議通過

【南京十四日發同盟】十四日立法委員會議를通過한 鐵路公債條例全文十五條는左와如하다

一、國民政府는 湖南 貴州 四川 陝西의幹線新設과 粵漢線延長을 補助키爲하야 財政部 鐵道部의 共同으로 公債를 發行함 此를第三期鐵路建設公債라고命名함

二、本公債發行總額 一億二千萬元을 二十五年三月一日 二十六年三月一日 二十七年三月一日의 三回로分하야 發行하되 每回四千萬元으로함

三、額面의九十八%로發行함

四、年利 六分五厘

五、第一期發行分은 四十五年二月末日 第二期는 四十六年二月末日 第三期는 四十七年二月末日로서 滿期償還함

六、本公債의 償還基金 第一條에所定한 新設延長의各新線의純利益及 國有其他 各鐵道의純利益으로 旣存債務의 充當할分을 削除한剩餘의 純利益으로서 이에充當하나 新鐵道가 純利益을擧하지못할동안은 財政部는 國庫로부터 第一年은 二百四十萬元 第二年은 三百六十萬元 第三、四年에는 各四百八十萬元의 補助基金을 支出함

七、八、九는省略

一〇、債券은 一千元、五百元、百元의三種으로함

一一、一二、一三、一四는省略함

一五、本條令은 公布日부터 施行함

新舊大使를合席코 對中政策再檢討

三原則을基調로하고中國側立場도考慮

漸進的으로懸案解決

【東京電話電通】有田新駐中大使는 二十二日 東京을出發하야 赴任하기로되엿슴으로 外務省은 歸京한 有吉大使를 마지하야 十四日午後三時부터 次官邸에서 對中政策再檢討의 重要協議會를 開催하고 有田 有吉 新舊大使 堀內一等書記官 本省側으로부터 重光次官 桑島東亞局長 天羽情報部長 上村事務官等이 出席하야 約三時間 討議를 거듭하고 六時半에 散會하엿는데 日本의 對中政策은 有田大使의 着任을 機會로 마침내 對中三原則에 基한 建設工作을 進捗하기로 意見이 一致된 模樣이다 그리고 會議席上에서 爲先有吉大使는 蔣介石氏도 內外情勢로 日中兩國의 提携에 依하는 外에는 東亞의 政局의安定을 期할수 업다는것을 깨닷고眞正으로 日中關係의 調整을 期하고잇슴으로 日本側도 此際 對中政策의 確立을 圖하야 積極的으로 建設工作을 進行할 必要가잇다는 見解를 披瀝하엿다 이에對하야 外務省側으로부터 여러가지 質問을 行하고 愼重協議를 遂한結果 大體로 左와如히意見이 一致된 模樣이다

日本側으로서는 어데까지 對中三原則을 根本으로 그具體化에 當하여는 中國側의 立場도 考慮하야 漸進的으로 實質的으로 問題의解決을 圖하야 又北中問題 內蒙古問題의解決을 第一義로 滿中間의 完全한 調整을 行하야 外務軍部의 聯絡을 緊密히하고 外交의 一元化에 依하야 對中政策의 完全한 實現을 圖할 必要가잇다 그리고 外務省에서는 有田新大使의 出發까지에 數回檢討를 行하야 最後的訓令案을 作成할豫定인데 有田大使는 一月末 南京에到着하는同時에 右方針에 則하야 南京會議의 豫備交涉을 開始하기로되엿다(寫眞은 有吉大使)

日本의大陸政策은 國民利益에背反

日中關係와米紙論評

【紐育十四日發同盟】크릐스챤사이엔스모니터-紙는 十日紙上에『日本은 무엇을 欲하는가』라는 題目下에 社說을 揭載하야 日中兩國關係에 對하야 다음과가티 論하엿다

萬一 日本人에게 日本은 무엇을 中國에 要求하는가 무르면 誠實을 要求한다고 對答할것이다 中國이 誠實을缺한다는것은 政治的 軍事的으로 弱하기때문에 카메레온과 가치 不得要領한 以夷制夷政策을 取하게되엿것은 疑心할餘地가업다 日本은 中國이 國內秩序를 維持하기에 不足하고 더욱 日本의 要求에 反對할만치 强하지안키를 希望한다고해도 틀림업다 그리고 經濟的으로는 中國이 繁榮하야 보다 더만흔日本品을購買하기를希望하나 競爭者로서 工業的으로 發展하기를 希望치안는다 日本이 中國에對하야 比較的穩健한 政策을 取할境遇에는 地理的으로 接近하고 經濟的能率에잇서 優越한關係上 商業[illegible]은 實現할수잇슬것이다 日本의財政的 其他의 制限을 돌보지안코 [illegible]大陸政策에 着手하려는것은 日本의國民的利益에對한 最大의 犧牲일것이다

三個의蘇領事館 다시閉鎖斷行乎

在蘇滿洲國領事館과均衡取코 增設要求否認할方針

【新京十四日發電通】蘇聯奉天總領事館閉鎖에 伴하야 蘇聯은 다시 現在六個所의 總領事館及 領事館中 奉天을包含한 四個所의 總領事館閉鎖를 斷行하리라고 觀測된다 卽滿洲國은 일즉 蘇聯에對하야 蘇聯領內滿洲國領事館二(치타, 블라고베쉔스크)와 滿洲國領內蘇聯總領事館及 領事館六(奉天, 哈爾賓, 黑河, 綏芬河, 滿洲里, 齊齊哈爾)의 不均衡한 現狀是正을 要求하여왓는데 蘇聯側은 滿洲國領事館의 增設을 認定치안흘方針으로 蘇聯領內滿洲國領事館과 同數의二個所로整理하려는것인바 今後 閉鎖될것은 哈爾賓 齊齊哈爾 綏芬河三個所라고 觀測된다

留學生과의不和로 劉駐伊大使辭職乎

【上海十四日發同盟】駐伊大使劉文島氏는 伊太利飛行機의 中國輸入을 斡旋하야 努力하고 잇든바 中國으로부터 伊太利에 派遣되여잇는 軍官學校出身의 航空留學生과의 사이가 자미업서 航空留學生은 全部連名으로 劉大使의 解職을 國民政府에 電請한事實이 判明되엿다 國府에서는 크게 狼狽하야 留學生을 慰撫하려하엿스나 態度가 자못强硬함으로 結局劉大使는 辭職케될模樣이다

撤歸는當然事

在奉各機關의意見

【奉天十四日發電通】十四日에 蘇聯奉天總領事館撤收 聲明은 時節이 時節이니만콤 여러가지로 臆說이 傳하는데 蘇聯總領事館當局의 說明及 在奉各機關의 意見을 綜合하면 蘇聯總領事館의 撤廢는 오래前부터 問題되여왓다 南滿一帶에는 蘇聯國籍人이 업고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도 存在意義업슴으로 早晩閉鎖될 運命에잇섯든바 陣容도 亦是자못貧弱하엿다 따라今回의 撤收는 經費關係라고 보는것이 至當하다

人事·集會

▲白耳義經濟使節 로도르프바루氏 헨리-데모드氏 제루이氏等一行은 來二十日着京 一泊後渡滿豫定

▲李恒九男(李王職次官)渡東中 十六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着歸任

▲朱英培氏(五山高普校長)十四日入京韓昌旅館에

對中國策一元化

岩村參謀長重要進言

【東京電話電通】第三艦隊의 中國警備狀況報告를兼하야 對中政策에關한海軍側의 態度決定에關한 重要任務를 帶하고 十四日朝에 着東한 岩村第三艦隊司令部參謀長은 午後二時 海軍大臣室에서 열린 首腦部會議에列席하야 現地의 警備狀況及 上海中山水兵事件 汕頭事件의 眞相을 報告하고 아울러『日本의對中政策遂行上 外務、陸軍、海軍에잇서 그態度가 區區함가튼 疑念을 抱懷케하는것은 中國當局으로하여금 그歸趨에 迷惑케하야 日本의眞意에對하야 더욱 疑惑의念을 깁피하야 日中親善의 實를 擧하기不可能한바 駐中海軍當局으로서도 警務任務를 遂行하는데잇서 苦心과 考慮를 하게되므로 此際 政府로서는 對中國策을 一元으로 强化하야 同一한 步調로 進行할 方途를 指示하기를 切望한다』는旨를 開陳하엿다 이에對하야 海軍首腦部는 大角海相以下가일즉 同樣의 意見을 抱懷하고잇든 大角海相과 如히이는 機會잇는대로 그必要를 岡田首相과 그他에對하야 力說進言하고 잇는것 만큼 岩村參謀長의 意見에 異議를 表하지안코 玆에 海軍當局은 陸軍省과 密接한 連絡을 取하야 外務省을 背後에서 支援하야 對中政策 充實遂行에進出하기로 되엿다

新海軍條約 起草完了

三國의妥協進行

【倫敦十四日發同盟】倫敦海軍會議는 방금最後的段階에 드러가 新海軍條約草案의 草稿도 起草分科委員會에서 起草를 完了하게될模樣인데 右草案大綱에 對하야 獨逸政府는 大體로 異議업다는旨를 英國政府에 通達하엿다고 傳한다 英國政府에서는 米佛伊三國代表支持下에 新條約案을 作成하야 各國代表의 假調印으로서 會議를 끗마칠方針이라한다 다음에 獨蘇兩國政府 그他關係各國政府에 新條約案을 提示하야 假調印을 求한後 다시 英米佛伊四個國政府間에 正式調印을完了할意圖이라고 解釋된다

리트비노프氏來日?

타스東京特派員이要望

【東京電話同盟】東京駐在타스通信特派員 알렉세이나기氏는 莫斯科本社에 左와如한電報를 打電하엿다

最近日蘇兩國의 關係가 惡化하게된結果 日本政府一部에서는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長이 東京을 訪問하게되면 반드시 兩國關係改善에 資할바가만흘리라고 信한다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長은 자로各國首都를訪問하고 잇슴으로東京을 訪問하리라는것도 決코不可能한것은아니다 右訪問이 實現되여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長이 ⅹ히 日本政府要路者와 會見한다고하면 日蘇兩國의 善隣親善關係는 크게促進될것이다

蘇評論家『칼、라데크』氏 對日强硬論吐露

但리트비노프氏渡日說報道 和協工作餘地도表示

【莫斯科十四日發同盟】國境紛爭事件頻發로 莫斯科外交界는 日滿蘇三國關係의 推移를 重視하고 特히 滿蘇兩國間의 關係에 對하야 異常한 注目을하고잇는데 莫斯科各紙는 十四日紙上에 日蘇兩國關係에 言明하야 이즈베스치아紙의主筆 칼라데크氏와 如한이는 例의辛辣한 論陣을베프러 蘇聯軍의 神經은 强硬完全하야 必要한境遇에는 蘇聯軍의 雙手도 健全하다고 强硬한 意見을 吐하엿다 同時에 日本政府는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長의 來訪을 歡迎하리라는 東京新聞電報에 關하야 大大的으로 報道하야 充分和協工作을待望할 餘地를表示하고잇다 但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長이 果然傳하는바와가티 東京을 訪問할意向을 가지고잇는지는 아직明白하지아니하다

八面錄

◇「가르밋슈」의 氷上올림픽에서 우리選手 金正淵君 一八分二秒七로 新記錄을내엇다。

◇萬里異域에서 萬米競走에 萬人의 明采를 밧기는 萬人의 바라는바。

◇順位로보아 十三位라함은 섭섭한듯한反面에 將來가 期待되는成績。

◇그뿐아니라 六十六名中 十三位라함은 世界的으로도 자랑할만한 實力。

◇싸워서 이기기를 바람은 人之常情이나、實力을다하야 最後까지 싸움은戰士의 道德。

◇勝敗를 뭇지마라、世界的舞臺이거든 지더래도 나아가자、이기는날을 바라고 나아가자。

獨裁管見

後進社會의特徵

—文化的並進의再高調—

(九) 安在鴻

＊

一九二二年十月二十八日 팟시스트黨의『羅馬進軍』은 확실히 歷史的 軍大事件 이엇섯다 뭇소리니首相이 에마누엘三世國王과 對面하야 堅固하게 伊太利政權을 掌握한지以來十五年에 平素에는 歐洲의 風雲에 회파람불고 드되어는 에디오피아 倂呑의 合理性을 咆哮하게까지 僭越하여젓다。그러나 그가 一九一九年三月二十三日 當時 컴뮤니스트의 總本山이든 미라노市에서 처음 百餘人의 數로써 팟시스트黨을 結成한以來 그自身이『송장치에 파고든 송장』이라는 社會黨의 嘲罵를 바드면서 [illegible]를 격는동안 써 오늘까지의 威勢를 맨들어온것은 무엇인가? 그는 上述社會情勢가 戰亂以來 만흔條件에서 (1)愛國主義的反撥傾向을 濃厚하게 가지게된 伊太利大部人民의 動向과 (2)赤色騷亂에서 맛본 冷遇와 排擊과迫害에 憤怒하엿든 百萬將兵의 大量또 急速한 팟쇼加擔및그支持에 由來함이 큰것이다。그러나 이外에 매우 巨大한 한條件은 伊太利의 獨立自主하는 國家의 總機構가 이를 팟시스트生長에 直接間接의 擁護및 支持를 펴은 만히 寄與한 그것이다『저소파르타까쓰』의 急激한 騷亂이 戰敗獨逸에 一大社會的動亂을 가저오려 할때 百戰餘威를 把持하고잇는 戰線에서 돌아오는 武裝軍隊들이 그愛國的이든 社會民主主義黨의 에벨트大統領에 向하야 誠忠과 支持를 맹세하엿슴에 依하야『리북네히트』等도 고만中途敗亡하는 慘厄에까지 가고말은것은 以來쉬트레제만等의 妥協政策과『로카르노』以後『安定』의 消息을 傳하든 獨逸資本主義의 危機가 닥어옴에 鑑하야(무론이는 全國際情勢의 一部로서 이지만) 畢竟 히틀러等 나치스獨逸이 國際政局에 登場하게되는 그政治的 社會的 諸情勢 이엇슴을 미리보여주든 것이다 그리고이는 巨大한 旣成勢力의 存在가 그國家自主의 權力과한가지 얼마큼이나 그社會的政治的動向에 決定的인 勢力으로되는 兩·大條件됨을 表明함이다 이것을 累百萬出征兵士가『勞兵』의 이름으로 積極合作함에 依하야 一九一七年十一月 露國의 歷史에 一新紀元을 그은(劃)것 가튼데서도 가장잘 互相反證이 되는것이다

×

『暴力은 不道德함은 아니다 도리어 어떤때는 道德이다』고 뭇소리니는 그羅馬進擊에 臨하야 외치섯다 暴力禮讚은 팟쇼의 本領이다 그러나 팟쇼에 限하지 안흐니『컴뮤니스트』의 暴力禮讚도 全然同一한 者이다 要컨대 資本主義의 危機란者와 한가지 自由主義의 經濟함에 독무하야 부르獨裁이냐? 프로獨裁이냐?가 天下勝敗의 分水嶺인것은 이方面의 初步智識인것이니 閑話休題한다 다만 政治的被隷屬이 根本的인 또 決定的인 條件으로 作用하고잇는 後進特種의 社會에잇서서는 이러한 팟쇼가 存在할수도업고 또 存在치도 안흔바이다 被隷屬地帶에 作用하고잇는 무엇은 그 艱辛努力하는 鄕土의『民族的인것』인 者가아니오 實은 海峽을건너오는 壓倒的으로 巨大한 다른!正面의 勢力인것이다 여기에 甚大한 認識의 錯誤는 잇슬수업는일이다

×

論者혹은 先進國家의 팟쇼的인者와 後進被隷屬 社會의 民族的인것이 그本質에서 類似 또는同一한것을 指摘할것이다 그러나그는 全然서로矛盾되는 現下現實의 各國民과 各民族의 아즉까지 對立되는 嚴然한 事實에依하야 매우서로 그處地와 利害와 意慾을 달리하는 者인것을 알어야한다 前者는 征服의 均等이나 혹은 支配의 强固化함때문인 帝國主義의 發動임에 反하야 後者는 오즉 生存途中에서 自衛的인 反撥임에 지나지 안는것이다 만일 後進特種地帶의 鄕土人民들이 그意識的 努力에 依하야 그信賴와 協力이 자못强固한 團結과 및民族的 新社會의길을 걸어갈수 잇다하면 그는 가장 欣賀할 社會的 現狀일것이다 그러나 他力支配인現實의 政事는 結局이를 至難케하는 바이요 하물며 現代의 歷史的段階는 後進特種社會의 人民으로 先進國家의 팟쇼化한 혹은 帝國主義化한 征服的 國民主義에까지 發展할 根本的으로 可望업게하는 客觀的必然인 者이다 後進社會에서는 오즉 한개의歷史的 生成體로서의 文化集團인 民族人들이 激動하는 時局의 다음의 時代에서 그應分의 獨自的인 生活圈의 單位를 合理하게 把持할것을 爲하야 一定한 自己反省의 政治文化的 工作을 맛비 함을 要하고잇슴뿐이다 後進社會에는 이에 依한 文化的 重層 並存의 必然및 當爲性이 잇는것이다 그러하야 그들은 한동안 協同並進함을 서로 要하고 잇는것이다(了)

000264

精神的虛弱에對한再建設的强壯劑 肉體及精神的虛弱에對한再建設的强壯劑

네오톤 토닉
NEOTONE TONIC

虛弱하신분은斷然 네오톤 토닉으로健康을恢復하시라!
現代科學的原理에 符合되도록高貴한諸有効成分을 適當하게配合한世界的의强壯劑 네오톤 토닉으로…

發育促進 食慾增進 血球形成 補肺 神經强壯
適應症
一般虛弱肺結核 神經衰弱、萎黃病、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肋膜炎、一般疲勞、急慢性氣管支加答兒、産褥營養障碍、傳染病經過後、神經過勞、精神沈鬱狀態、脈搏不振、心臟疾患、스포-츠前後

包裝 一폰드-一個月分 半깔론-四個月分 一깔론-八個月分
本劑에對하야詳細한것은貴下가信用하시는權威잇는醫師에게問議하십시요
文獻及說明書請求即時送呈
네오톤 토닉 直輸入發賣元 柳韓洋行
京城西大門町二丁目七 大連市駿河町一九 上海圓明園路一六九

돈버리 조흔家庭工業
高尙한社會的意義잇는大東亞業界의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함
第一 ...의工業은家內總動員으로되는日用品의製造요 其他重要한 ...
第二 ...
株式會社 大阪 ... 市場通

旗 カメヤ旗店
校旗 萬國旗 會旗 優勝旗 宣傳旗 商業旗 國旗
京城府黃金町五丁目七番 電話本局一五八五番 振替京城一三四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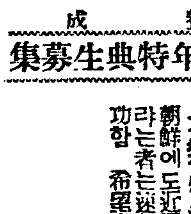
大學先生도 はれやか 쓰십니다 (頭腦의榮養劑) ¥0.30 ¥0.50 ¥1.00

時製 분백晶水
白粉이 들·白粉얼룩·여드름 멸의·헐음이고·化粧後에 는高尙明朗·속살부터히게됨 자한香味가뜨다
定價 五〇錢
松澤ホーサン石鹼本舖 東京·大阪
男女適近不問自宅執筆業〇勤人學生副業最良〇收多無休〇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有職業
◆化粧品科、石鹼科、全般技術責任付敎授、卒業後朝鮮滿洲開業自由
◆入學資格、普校小學校卒業程度以上、化學得業士稱號認許特典有
京城府竹添町 朝鮮化粧品製造法講習所 學則要郵券二錢

恩給 立替低利整理及借換 歡迎京城光化門通一四七(光化門郵便局前米店後) 朴商會

痔는 手術안코 오세로 로고스치라 치의 藥
全國各藥店에有함



朝鮮唯一 認可電醫 養成
三週年特典生募集
最新物療全科敎授院長東京電醫學校創始學長 物理醫療士責任敎授
朝鮮에도近近取締規則이發令되리라하니無試驗으로開業資格을어드라는者는速히入學하라本院卒業生은醫師同樣에尊敬을受하고好成功함 希望者에게는學則、內容書送呈·葉書로申込하라
認可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三四四番地 朝鮮商等物理醫學校創立事務所 永樂町若永醫院側

平壤聯合基督病院 看護婦養成所生徒募集
募集人員 十一名 入學資格 中等程度校二年修了者
試驗期日 三月三十日三十一日 願書受付期日 三月二十日限

東洋自動車學校生徒募集
◎入學隨意。免許證獲得。責任敎授。就職紹介
(元京畿道自動車運轉手試驗官) 校長 溝見良
京城府武橋町三二番地

東洋無線工科技術學校生徒募集
◎無線電信 電話(ラヂオ)技術養成 ◎就職紹介(學則詳細要郵券)
受驗期日三月三十一日 京城府武橋町三二番地

感嘆!! 感嘆!! 정말頭痛에썩조흔 ノーシン이다

曲折이 업다하면 府의 誠意問題
七八歲學童들의 越境通學은 大不可
注目되는 教育部會의 態度
新設普校基地問題

십사일오후부터 열린 경성부 제이부 교육부회의에서도 문제되엿든 시내 현저동(峴底洞)보통학교를 현저동에 세울것 이나 그러치못하면 부당국에서 말하는대로 무학재를넘어 홍제내리에 세울것이나 하는문제는 결코 심상치 안흔문제로 교육부회의경과가 극히 주목되는점이다 문제의 요점은 부에서 말하는바를 들어도 현저동과 관동(館洞)의 학령아동을 수용키 위한 학교로 현저동에 세울필요도잇고 또 그리하려고도 하엿스나 문제의긔지에대하여 형무소당국이 용허지안흐니 부득이 홍제내리에 설치하려는것이다

◇

그런데 홍제내리의 위치는 부당은 물론 현저동에 긔지를 택할수도 업지안흔것을 홍제내리로 결정하려고함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一、이번학교는 일호로 삼십학급에 근이천명 아동을 수용할 큰학교를 세우려는것인데 교통을편하고 또거리도먼 홍제내리에 세운다면 팔구세내지 십일이세되는 어린것들이 무학재바람을 안고넘나든다는것은 여간어려운일이아님으로 어떠케해서던지 현저동에 세워야될것은 물론인데

一、이와가튼 큰문제에 대하여 최초현저동으로 긔지를택정하엿든부당국이 이제다시 홍제내리로 옴기려함에는 어떠꼭절이잇는가 또꼭절은업다하면 성의가업지 안헛는가

一、또조선인부회원들은 이문제를 유리하게 처리하기위하여 과연 얼마나 힘쓰고 잇는가 하는점도 알어볼바이다

◇

그런데 문제의긔지를 대조하여본다면 경성부에서 처음 결정하엿든 현저동긔지라는것은 서대문형무소부근에잇는 국유지로 방금 형무소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잇는 칠천여평의 토지인데 그토지는 어떤 개인에게도 빌하를 하던가사용권을 빌리려든가 하는땅인만큼 형무소에서는 사실 그리필요치 안흔 땅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겸하여 종전에 동형무소에서는 형무소의 필요에의하여 부근의부유지를 헐까로사서 유용하엿게 되엿을도 잇슴으로 형무소로서는 이번에 부의필요를 들어서 전긔 토지의 사용권을 넘기어주어야 올흘것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학교긔지를 사용할것을불응함은 학교와 형무소가 근접지에 잇슴이불가타고는 하나그실은 지형상으로보아 담하나를싸으면 충분히 완전한 경계를지을수잇슴으로 문제는 안된다그 반면에 홍제내리의 후보지는땅도좁아서 이십학급의 건물밧게 더지을수도 업고 산이압흘 완전히 막은곳으로 해가늣게올으고 일속지게되여 극히 채광이 불량할것도 불리한 조건이되여잇다

◇

그런데 부청에서는 작년 칠월중에 현저동을 후보로 결정하고 부회원들에게까지 소개도 하엿다가 그후 칠개월간이나잡자코잇다가 최근에 와서야 왜 홍제내리로 작정하겟다고 떠드는가 그리면에는 어떤곡절이 업스면 성의가업슴이라 할것이다 또그리면에는 형무소에서 전과현저동긔지를 불하한다면 현재 서대문형무소에 채소용달을 하고잇는 모일본내지인의 소유인 홍제리의땅을 대신사주도록 하라고하여 가격평가에 부당한 점이잇서 말성이잇섯다함도 문제를 뜻밧게 분규케한리유라고도 전하니 긔지의결정까지에는 경성부당국의 태도에 애매한점이 업지안타

◇

귀여운 어린애기들의 학교터를 무학재바람그로 큰리우어시내보낸다는것은 알호로이천아동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결코심상치 안흔 문제이니 과연 어떠한결정을 보게될런지 십오일이후 교육부회는극히 주목되는다

尹快福君發明한 自働理髮器

【公州】 발명조선의 복다운소식 —충남공주군공주면 금정(錦町)일백팔십 삼번지에사는 젊은발명가 윤쾌복(尹快福)군은 요사히자동리발긔(自働理髮器)를 발명하야 실용신안특허(實用新案特許)까지 계출하엿는데 종래의 리발긔는 두손으로 사용하야 처음으로 사용하는사람은 매우서툴느며 깍기가매우 어려운것을 단주하나만 눌느면 아모리 처음으로 리발기를 붓들게되는사람도 용이하게 깍글수잇도록 맨든것이라하아 일반가정의 중보(重寶)이며 만흔 편리를 줄것이라한다

第一圖

(사진은 윤군과리발기)

公判도 크고 볼일
四百四十三人被告會議
李洙倬土地事件·判事가召集
公判은 四月六七八日

【全州支局電話】 피고수효라는가 소송규모로서 공전의큰 민사소송으로 사백사십삼인을 상대로 한리수탁(李洙倬)의 토지등기말소수속(土地登記抹消手續)과 토지인도사건에 대한공판기일은 드디여 오는사월육、칠、팔삼일간 전주지방법원에서 개정키로 되여 금명간 소장을 각피고에게 송달키로되엿는바 토지는 약백만평가량으로 함평에평균삼십오전식 처서 총가격 삼십오만원으로 사건담임판사인 상야(上野)부장 판사는 이사건의심리를 원만히 하기위하야 오는삼월구일에는 비공식으로 사백사십삼인 피고를 전주지방법원으로 소집하야 사건심리진행에대한 간담회를 할터이라는바 이는 실로 전례가업는 진기한례로서 일반의 흥미는 크다고한다

雇員이 巨金橫領

만주홍안북성신파이호좌의기공서(興安北省新巴爾虎左旗公署) 고원 록아도현(鹿兒島縣) 출신 춘일중덕(春日重德)(二七)은 지난달 이십구일오전열시에 만주국폐 일천륙백오십원을 횡령하야 어데로인지 도주해버렷다 해랍이(海拉爾)령사관경찰서로부터 십사일에 도경찰부에 이 범인을 붓잡아달라는통지가왓다

物品配給미끼로 印刷職工이 詐欺

고양군룡강면 공덕리산이번지(高陽郡龍江面孔德里山二番地)장만재(張萬栽)(二三)와 시내관동(舘洞)사번지의팔 정상규(鄭祥圭)(二九)두명은 사긔협의로 룡산서에서 취조중인데 그들은 시내 장곡천정 (長谷川町) 근태인쇄소 (近澤印刷所)의 인쇄직공으로잇든중 공모하야 소화구년구월 시내봉래정(蓬萊町) 사정목십이번지 잡화상하는 민흥기 (閔興基)를 감언이설로 전긔 인직공들의 물품배급을 마터줄터이라고속여 가짜전표로 금륙십원을 편취하엿다는데 이외에도 그와가튼사실이 만흘것갓다고한다

稅制整理가 나흔 卅五萬圓黑字!
戶別稅家屋稅의一般徵收함께
京畿道의歲入激增

지방세제(地方稅制)개정에 따라 경긔도에는 명년도 세입(歲入)예산에잇서 삼십오만원가량이증가되리라는데 명년부터 새로생긴세는 영업세(營業稅)부가세、취인세(取引稅)부가세 광세(鑛稅)부가세、어업세(漁業稅)부가세등으로서 영업세부가세가 약십만원、취인세부가세가 오천원、광세부가세가천원、어업세부가세가 오천원가량이며 종래에도세로서 군부즉가옥세(家屋稅)를밧지안든 지역에만밧든 호세(戶稅)를 호별세(戶別稅)라고 변경하야 전반적으로 징수하며 종래부윤(府邑)즉 호세를 징수안는곳에서만 징수하든 가옥세를 전반적으로 징수키로 된에따라 호별세가 약이만원 가옥세가 약십오만원가량 증가되리라이다 그리고 이번세제개정에의하야 경성、인천、고양(高陽) 개풍(開豊)부천(富川)등은 종래보다 세입이붓고 그외의 군들은 모다 세입이줄엇다한다

海州、長淵間鐵道起工

조선철도의 황해도 해주(海州)장연(長淵)간의 이십키로의철도공사의 시행허가(施行許可)가 인가되여 오는십팔일에입찰(入札)한후 공공사에 착수할예정이라한다

毒菌彈·結核喀痰
市內公衆集會場서檢查結果
八千餘件中結核痰이近百件

경무국위생과에서는 명년도에 폐결핵 예방박멸운동을 일으킬 계획으로 그전제로서 길거리정거장 시장 데파트 극장등 왕래가 빈번한곳에서 마음업시맛는 가래침에 관하야 각도위생과를 동하야 지난일년동안 여러차례 결핵성가래침검사를 식혓는데 검사한결과 팔천백사십건중에 결핵성가래침이 구십륙건이나 석겨잇서 이것은 모다다 타구이외에 배튼것으로 전염될 위험이 만흔것이 판명 되엿다 경무국위생과에서는 우선 타구설비를 엄중히식히는 한편 폐결핵예방협회를 창립하야 위생사상을 고취키로되엿다

相對者가中途에棄權 金君의奮戰詳報

【가르밋슈·파르텐키르헨十四日發同盟特派員發】 스피-드·스케-트一萬米는 十四日午前九時半부터리제르湖에서 開始한바 氣溫零下二度로 氷質은 자못良好한가운데 各國代表三十二名이出場하야 接戰끄테 諸威의 至寶『바랑그루-드』選手가 優勝하엿는데 同選手는 五百、五千、萬米에 制霸하고 千五百米에는第二位를 차지하야 超人的活躍을 보이여 스피-드諸國를 위하야 萬丈의氣焰을 吐하엿다 그리하야 遠西次나 諸威의 國旗가『메인마스트』에 올랏다

金君은 十三位를 차지하야 올림픽及日本新記錄을 作成하엿다 第八位까지 十七分臺 그리하야 十三位까지 十八分臺인데 모다 올림픽記錄을 更新하는 큰收穫을 어덧다

【寫眞은 올림픽氷上三種目에優勝한 銀盤의英雄 바랑그루-드選手】

【가르미쉬·파르텐키르헨十四日特派員發】 一萬米에 出戰한 金正淵選手는 七週三分一까지 달니다가 맛든選手가 突然棄權하엿슴으로 金選手는獨走하게되여 相對者가업시 獨走하엿슴에도不拘하고 이것이 最後의機會라고 力走 또 力走에 『참잘달린다』라는 感嘆聲이 여기저기서 連發하면서 滿場觀衆의 大聲援裡에 決勝線에 드러오니 그 記錄은 同君이 保持하고잇는 十八分二十四秒五를 깨트리고 또 前日『다보스』에서 지은 最高記錄 十八分二十二秒四도 君의 最後努力으로 깨트리여 從來 올림픽記錄도 突破하야 十八分二秒七의 快記錄을지엇다

"世界選手에列하야 우리實力을認識"
戰地에서金正淵君談

【가르미쉬·파르텐키르헨十四日發同盟特派員發】 既報=最後一萬米에相對者인『에스토니어』의『밋트』選手가 七週三分之一可量을 지나서 突然히棄權하야 孤軍奮鬪케되여 待望의十七分에미치지 못하기 二秒七의 올림픽及日本新記錄을作成한 金正淵君은 感激에넘치는語調로 다음과가티말하엿다

"아직도前途遼遠하다 目標를向하야 邁進하라"는 先輩諸位의말슴을본바다 今後더욱더욱勢發하렵니다 이번遠征으로 歐洲先進國의實力을 비로소體驗한나로서는 이제야 우리氷上界의 世界的對照下의 實力을 두렷이알엇스며 그向上의 方途조차 차즌듯합니다 우리의 不斷의努力과熱로써 未久에 世界制霸의 理想을 實現식힐戰術을 세우는同時에 이번 世界舞臺에의初試驗을 반다시 빗나고뜻깁흔것으로 멘들겟습니다

朝鮮拳鬪代表 激勵會開催

曩間 本社後援下에열린 世界올림픽拳鬪朝鮮豫選大會에서 覇權을獲得한 五階級選手 金享中 洪在浩 朴龍振 崔龍德 李奎煥 五君은 來二十五、七兩日間 東京 日比谷公會堂 링크에서 열리는 올림픽最後豫選大會에 出場코저 來十七日 午後十時五分 京城驛發列車로 壯途에 오를터인데 이들의 出征을 激勵하는 意味에서 東洋拳鬪會 中央基督拳鬪部 京城拳鬪會等의 聯合主催로 十六日 午後三時부터 百合園에서 前記選手의送別會를開催할터이라한다

伯林올림픽에 朝鮮서活寫技師派遣

朝鮮體育協會에서는 今夏伯林서 열리는 第十一回世界올림픽大會에 視察員을派遣하기로되엿는데 總督府에서는 同時에文書課의活動寫眞技術員을派遣하야 마라손의孫基禎選手以下 朝鮮出身代表選手의活躍을비롯하야 大會의實況을 撮影하기로되엿다한다

白狗//씨슨·업//

白狗 滑氷俱樂部에서는 今年度『씨-슨·업』을 明十六日 午後三時부터 漢江特設링크에서 擧行할터인데 氷盤이 如意치안흐면 스케-팅은 中止하고 同日 午後六時半에 公平洞北京園에서 晩餐會를 열터이라는데 當日會費는 每人五拾錢이라한다

男子피거競技 英國優勝

【十四日發同盟特派員發】 第四回冬季올림픽大會 男子피거競技順位及 成績은 十四日고리-競技終了後 審判部에서 다음과가튼正式發表가잇섯는데 墺太利의『쉬-페』選手가 順位點七 總得點四二二·七로서 優勝하야 同國國旗를『메인마스트』에 놉히날리엇다

▲1쉬-페(墺)四二二·七 ▲2바이엘(獨)四〇〇·八 ▲3가스티(墺)四〇〇·一 ▲4웰-손(加)三九四·五 ▲5샤-1부(英)三九四·一 ▲6단-(英)三八七·七 ▲15片山(日)三四七·六 ▲20老松(日)三三三·二 ▲21渡邊(日)三二五·四 ▲23長谷川(日)三一四·六

하키-決勝리그 英國軍快勝

【十四日同盟特派員發】冬季올림픽大會 아이스하키決勝리-그戰 第一日의 英國對체코戰은 十四日 午後六時부터 擧行하엿는데 이對戰은 올림픽決勝戰과 全歐羅巴 아이스·하키選手權大會를 兼하야 열리는것으로 興味를 이끌고잇든바 結局 五對零으로 英國팀이 優勝하엿스며 同時에歐洲選手權도 함께獲得하엿다

英國 5 (2—0 / 3—0 / 0—0) 0 체코

第九日까지의 各國得點順位

【가르밋슈·바르텐키르헨十四日發同盟特派員發】 第四回冬季올림픽大會第九日까지의 各國得點順位를보면、諸威國이 이날도스피-드·스케-트一萬米레-스에 一擧十點을加하야 七十八點으로 斷然리-드하고잇스며 第三位의芬蘭은 萬米에七點을어더 第二位의獨逸과의 四點으로肉薄하고잇서 스키-점프競技로서 獨逸을누를形勢를보이고잇다 和蘭은 一點을加하야 九位로되여 日本과伊大利는第三位로떠러젓다

▲1諸威七八 ▲2獨逸三九 ▲3芬蘭三五 ▲4米國六點二分之一 ▲5瑞西十五 ▲6墺太利十四點二分之一 ▲7瑞典十四點 ▲8匈牙利七 ▲9英國四、▲9체코슬로바키아四、▲9佛蘭西四、▲9和蘭四、▲13日本三、▲13伊太利三、▲15加奈陀一

軍隊스키-伊國一着

【가르밋슈·바르텐키르헨十四日發同盟】 冬期올림픽大會第九日인 十四日의 오픈競技(二十五키로)軍隊스키-團體競走는 午前八時半(京城時間午後四時半)부터開始되바 伊太利軍이 二時間二十八分三十五秒로 快勝하엿스며 芬蘭軍은 二時間二十八分四十九秒로 第二位에落하엿다

▲3瑞典 ▲4墺太利 ▲5獨逸 ▲6佛國

支離한監獄出入
二十年間刑務所사리하고
열한번째또鐵窓行

열번째나 인생의지옥이라는 감옥에들어가서 전후이십여년간을 어둠에서살고나온사람이 세상에 발을부치지못하야 또절도질을하고 감옥행을하게되는 생각만해도 암담한일이잇다

평남순천군자산면신풍리 (順川郡慈山面新豐里)에 본적을둔 변의수(邊義洙)(四一)라는 사람은 작년십이월 이십삼일에 대전(大田)형무소에서 오년징역을 마치고 나온사람으로 사십평생에발서 열번째 이십여년을 감옥사리를 하엿슴에도 불고하고 또다시 십오일 새벽에 구두한켜레를 도적하여 가다가 시내 청진동(淸進洞)일백칠십번지 압해서 소관 종로서원에게 체포되엿는데 제버릇을 남못준다고꾸짓는경관에게 그는 한발로 그를 부처주지안는 싸늘한 세상을저주하며 눈물의하소연을하고잇섯다

新府議는 編入區域에만選擧
京城十二名、釜山三名

경성、부산의행정구역확장으로인야 생기는 부회의원선거는 내무국에서 고려중이나 보결선거도아니고 구구역과 신구역사이의 선거구역문제가 종래에는 업섯슴으로 여러가지의 방식을 연구중이든 결국 새로 편입되는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시행될것이며 경성부는 십이명 부산부는 삼명이 선거될것이며 기일은 오월이십일경이라 고한다

酷寒一去後에 때아닌洪水難
仁川北村一帶의問題

【仁川】 살인적추위! 령하이십도 추위가 자최를감초매 시탄실은배가 닷지하야 시탄총수를 이루워 엽송하붓에 십일전으로 폭락하얏스나 또 한가지 문제는 북촌일대에 때아닌홍수난이다 평소에 하수구의 개수가불충분한 금곡(金谷)우각(牛角)화평(花平)송림(松林)송현(松峴)신화수리(新花水里)룡동은 조선인중심주택지로 오예물의소제의불충분으로 오예물이산적하엿슴뿐아니라 녹여나오는 하수구의물로 홍수난을이르키고잇슴뿐아니라 북촌위생상근문제이라고한다 동시에 여게대하야 수수방관하고잇는 부의무성의 한태도에 원성이놉다고 한다

東拓礦業事務開始

【奉天】 동척(東拓)에서광산업부를 계승한동척광업은 지난이월일일부터 사무를개시하엿다는데 동사에서는 조선내광업 경비와 함께만주와북중국등지로 업무확장을 기도하고잇다

高級絹織專門 廣林商會

曾經假刑事被逮

얼마전시내 봉래정(蓬萊町)삼정목팔십칠번지의 박용대(朴用大)(三〇)의집에 드러가서 거짓형사인척하고 현금 백십원을 속여먹고 다러난 범인의 종적에 대하여는 그후 소관서대문서(西大門署)로부터 엄중히 내사를진행하고잇든중 십사일오후여섯시에 이르러 드디여 범인을붓잡엇는데 그는 시외 공덕리(孔德里) 삼백륙십구번지 전과 삼범 장경인(張敬仁)(三七)으로 박용대의 집에드러가 가형사질로 속여빼아슨 돈을가지고 그이튼날 만주(滿洲)로 내빼서 그곳서사흘동안을 정부와 함께 질탕치듯 놀다가 가진돈이 다떠러지게되자 사흘만에 다시 조선으로 도라와 그길로인천(仁川)에나려가서 인부감독으로 날품파리를 하여 그날그날생활을 해보앗스나 그역 뜻과갓지못한고테 십사일 다시 버리자리를 구하려고소사역전(素砂驛前)으로 왓다가 가튼날오후 여섯시 법서부터 경계중이든 서대문서원에게 그곳 어떤음식점에서 붓잡혓다 그리고 문초에 따라서는 다른죄상이 상당히 드러날것으로 보고잇다한다

京南에白癬漫延

【京南】 요즈음경남일대에는백선(白癬)이란머리헐과 피부를마비케하는 고약한병이 매우 창궐하고잇서 한지면(漢芝面)일대는물론시흥군(始興郡)까지전파되고잇는데 더욱이놀내지안흘수업는일은 보통학교생도들에게 이병이 제일만타한다 발병원인에 대하야는 소할경찰서에서 적극적조사중인데 이는대개는 면허업시 떠돌아다니며 몰래 리발영업을 하고잇는 행상군과 또소독을결한 리발소에서 리발긔구소독을 충분히 하지안는데서 전염되는것이라고한다

百五十名燒死
天津中人貧民窟火災

【天津十四日發同盟】 십사일 새벽천진 중국사람들이사는 세민굴(細民窟)에서 불이 일어나 때마츰 바람이 심하게불어 화세는 커저세민들은 움속에서자고잇다가 불에타죽게되여 일백오십여명이나 죽게되고 불을피하야나온 일천사백여명의 세민들은 길에서 떨고잇다한다

漁船補助에 國庫補助延長
今後十年間年十二萬圓

총독부식산국에서는 어민에게우수한 어선의건조를 장려할의미에서 대정십오년부터 십개년계획으로 매년십만원식의 국고보조를지급하야 어선건조를 장려하여왓섯다

그리하야 현재에 이보조를바다건조한 어선수는 긔선이 이백칠십척 범선(帆船)이 칠백팔십척에달하야 어획(漁獲)수량도 격증하여갈터이다

그럼으로 총독부에서는 다시 이계획을 연장하야 구년도부터 십개년계획으로 매년십이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야 일천오백척을 건조하게 되엿는데 십일년도만은 재원관계로 보조금은 사만원으로 삭감되엿다한다

相澤事件公判
次回는十七、廿二日

【東京電話同盟】 영전사건(永田事件)의 계속공판은 특별변호인 계택(鵜澤)박사의 사정으로 제팔호공판을 십칠일에하고 제구

擴張仁川의明日은 區域도現在四倍
今年十月까지는實施를豫想
電車敷設도計畫中

【仁川】 인천부구역확장실은 가장큰주목을 잇끌고잇서 부민의 갈망중에 잇다는데 총독부방침을 탐지한바에 의하면 오는사월에는 틈림업스리라 하얏든것이 부득이 오는십월경에나착수케되리라는대 구역은 주안면전과 남동면(南洞面)까지 느어 적어도 현재보다 약사배가량되리라하며 구역확장과 한가지 오십만원경비로 전차까지 부설하리라하야 팔마부민의 가장큰기대를 갓고잇다한다

中央時報週報發行

원남동(苑南洞)팔십칠번지에잇는 중앙시보사(中央時報社)에서는 그간 륙년동안꾸준히 중앙시보를일간으로 간행하여오든바 이번에주간(週刊)으로 변경하는동시 내용을 혁신키로되야 오는 이십구일에 혁신제일호를 발행할터로 매주토요일마다 발행할터이라한다

歐亞連絡旅行機 地中海에墜落

【마테이라十四日發同盟】 지난십삼일 김혼밥 아푸리카서해안테네리푸섬부근의 해상을 비행하고잇든 구아련락려객기(飛行機)가 돌연히 발동기에 장이 일으키어 지중해(地中海)추락되엿다고하는데 려객기에 승객이 삼십명이나되여 때마츰 행해중이든 영국 항공모함(航母艦)「카-리어스」호는 이급보를 듯고 곳수색하기 시작하엿다한다

天氣豫報

大陸의 高氣壓은 東으로 移動하여 온돌아츰은 朝鮮으로부터 日本과日本海로 퍼지고잇스나 그形勢가弱하다。低氣壓은 天津附近에잇다 南朝鮮은 大槪개이고 곳곳마다 흐린다。日本內地도 흐리고 군데군데小雪이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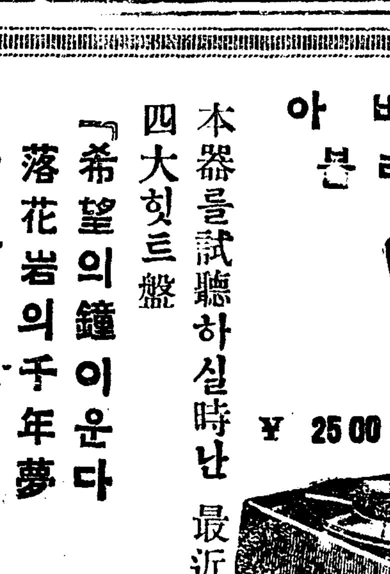
豫報 京城附近은 오늘밤흐리고 래일도흐릴것이나 小雨와 小雪이 잇슬지모른다。 京畿道全區도 가틀것이다

昨日 最高 二、六
昨日 最低 零下五、六
今朝 最低 零下八、四
今日正午溫度 一、二

現代人의 美髮料 香氣潤澤 絶對優秀品
ニ好ホマード
三好煉白粉 同固煉白粉 同香水 同顆白粉 コリア石鹼 三好化粧水 同香油 同水白粉 同口紅 同石鹼
其外本社製品
京城府 三好化粧品株式會社

ヘチマの精
美晶크림
살결거치러워지는 치위를 걱정업시 보내시려면! 生氣잇고 부드러운 살결이 그립거든 어느때나 당신의 鏡臺압헤美晶크림을常備하시오

콜럼비아 포-타블
本器를試聽하실時난 最近 四大힛트盤
「希望의鐘이운다」
「落花岩의千年夢」
「술주정뱅이」
「빗나는靑春」을 들어주십시오
本器의特點은「音이조코、가볍고、갑이싼性能器」입니다
¥25.00



內科チストマ 토질 十二指腸虫 채독 科專門
京城金弘璡內科醫院
總督府前 電話光三一三 振替京城五七貳貳番

金 銀 白金 (福)
東京市下谷區練塀町
株式會社 石福商店
電話下谷(38) 〇九五九番 〇九二九番 〇二八五番 〇〇八八番
振替東京六八八番 略號 受信 (クフシイウケト)
出張所 平壤府旭町

高血壓 神經痛 中風 腦病 喘息
억개결리고、머리무겁고、귀울고、현기나고、동기、숨찬、저리고、현긔증、반신불수등은 ...
神戶市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 이제일이요

超스피-드空中征服時代(공중정복시대) 이사진은 비행기의가는 길을잘살펴서고장업시 속력을내는 광경이오 병에도 위선약을 잘선택하야 치료하여야합니다 림질약도 하도만호니 다른약에 속지마시고 제일속하고 안전하고 신용잇는 약 구로벨을 쓰시오

효력최극상 최특등 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 독일약(헤루미도-루)도 만히 들엇고 세게적 대신 발명한 약제도 전보담 만히 더느엇답니다

◇남녀만급성림질、부인적백대하증、남녀냉증、오슴소태、월경 고르지 못한데며 하혈(下血)등으로 별치료를하야 보고별별약을써도 무효하야돈만허비하고 근치안되며 고통하는분은 이것저것주저할것업시안심하고 제일먼저 신발명한 (Kurober)구로벨을쓰시오 구로벨은 틀임업는약이다 이러한자신(自信)을 어든결과환자의 안심과신용을엇기위하야 장담하오니 안심하시고 쓰시오

구로벨의특장

一、약효가강렬하야 여러해된 고질특히 재발한만성림질과 대하증은 물론 림독성으로된방광염고환염(산증) 섭호선염 자궁내막염란소염라팔판염뇨두협착등에솟코

二、이약은 다른약과 가티지리하게 오래동안안먹고만 급성간에 오래된 고질만성증이라도일주일내로 효력을보고

三、림질약 치고위장이 안상하는 약이업는데구로벨만은 조금도 안상하고 다른부작용이조금도업슴으로위장이약한분이 만이먹어도트림하나안난다는말은효협본여러분의 찬송하는것이오 그런데이약이속한리유는다른약을오래쓰게되여 그동안조섭이끈난한소치엿다

【약갑】 완고약성에 구원、만성긔타 제증에오원、대하증、냉병기타부인병에오원、급성과부인오좀소태에삼원、지방송료、선금십오전 대금인환은삼십오전 (오원이나삼원이나다일주일분)

만일 무슨 약이든지 이삼일쓰시와 특이성의체질(特異性體質)노병에 안맛거나광고와 틀리는 점이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특효가 업거든 약을 곳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하여 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五) 제일큰서양돌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약품부)

電話光化門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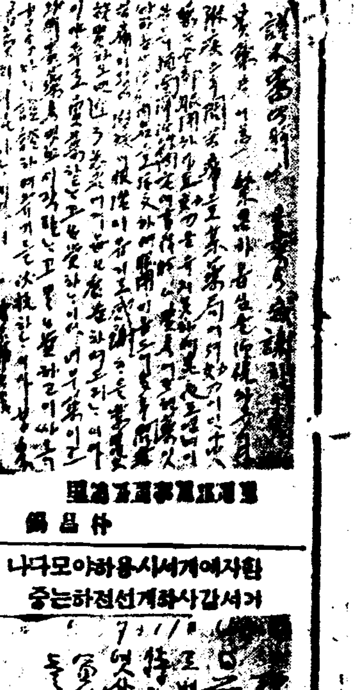
속히구로벨을쓰시고 이런옥동자를나십시오

림질약은
신성당이독판친다고 그러
더니입달닌사람이면다
한다하오(다른약은안그런가)
하는수업다결국잘낫는
이독판칠수박게
십여년된고질이나엇다
감사장이업스면절대로
마시오 감짜고화리만코경쿠
주는약은결국갑싼갈치사반이지오
당신은하도만히 감사장업는
속아서이감사장도밋지안켓지오
그러나이감사장을위조하면
거짓말로쑤미면 사운서위
에서야단합니다
그러니이감사장만은절대
밋더주시오

이이는엇지하야 장님이되엿나 림질균이눈에드러가면눈이멀고 태중에림질대하증에걸니면 눈먼아희를난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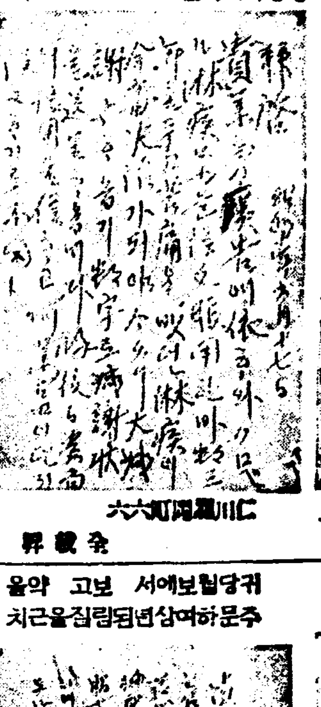
000265

삼년된 림질이 완치 되여 에약점까지 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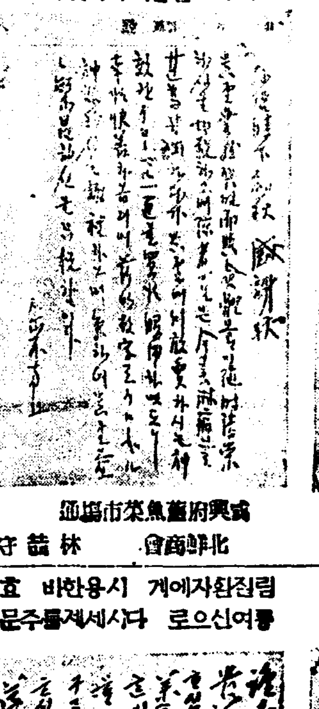
[illegible] 朴昌鎬

수년된 림질이 완쾌되여 신성당약이라면 다 사용하게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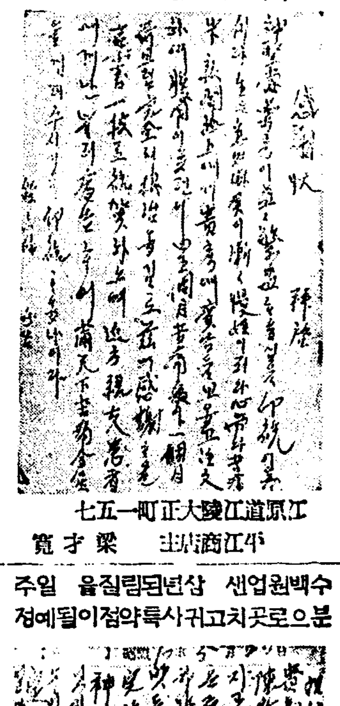
仁川[illegible]町六六 [illegible]

고통에고통하던 림질이 목 한갑에다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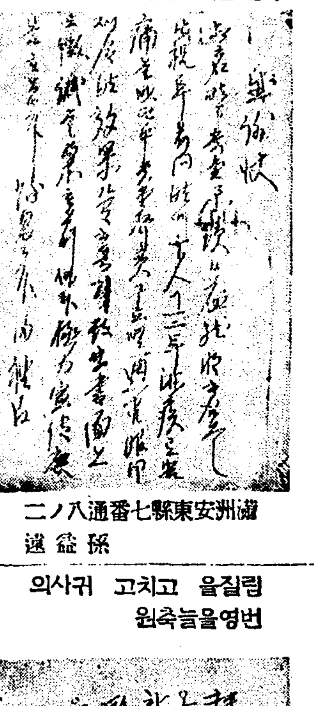
咸興府舊魚菜市場通 北鮮商會 林喆守

사오개월 고통한 림질이 다나어서 친지에게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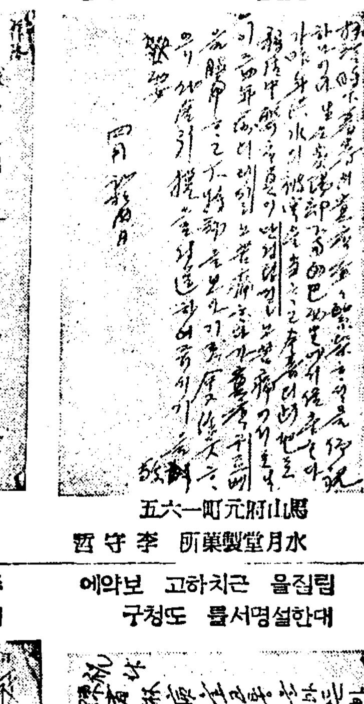
江原道江陵大正町一五七 平江商店主 梁才寬

수년된 림질이 일주분으로 즉효보와 국귀선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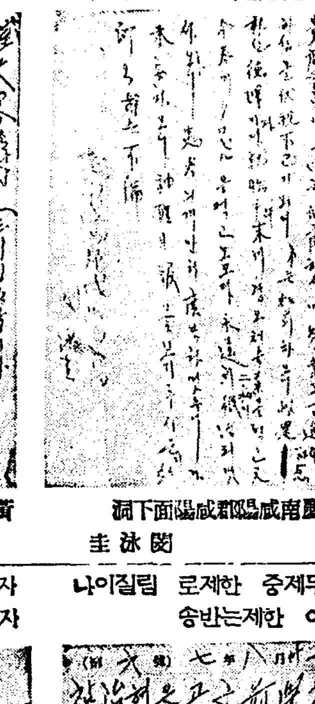
滿洲安東縣七番通八ノ二 孫益遠

수년전 신효보고 만성림질에고통한점원 딸으로또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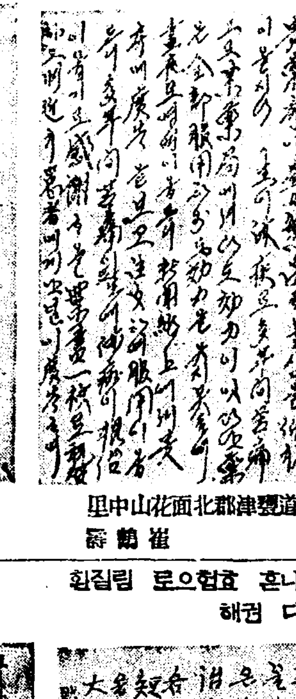
馬山府元町一六五 水月堂製藥所 李守哲

작년에는 체증에 경오률금춘에는림질을구로벨노아주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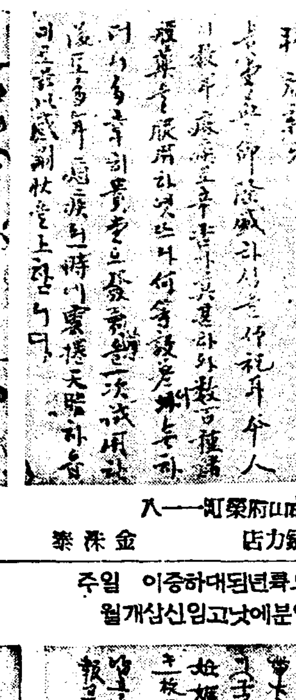
慶南咸陽郡咸陽面下洞 閔泳圭

약방에서 조타는약으로 안낫던림질이 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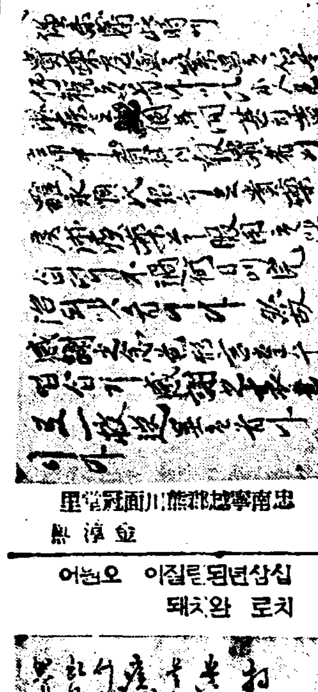
黃海道甕津郡北面花山中里 崔鶴爵

수백종약으로 안낫던 완고한림질이 운권청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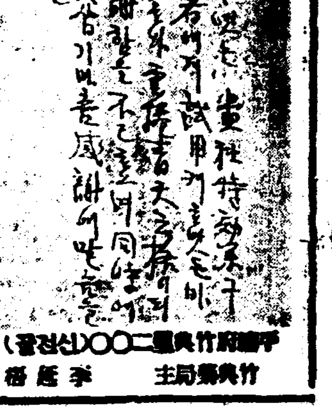
釜山府榮町一一八 試力店 金株泰

귀사 월보독자소개로 칠개년된림질이 봄눈가티업서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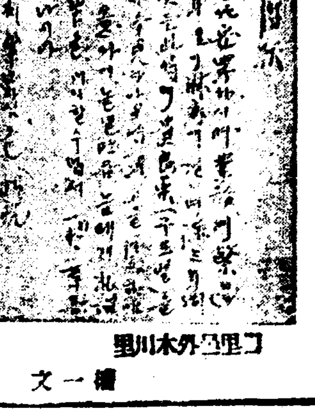
忠南[illegible]郡熊川面冠堂里 金淳熙

환자에게서 시용하야 모다나 거서감사하게선천하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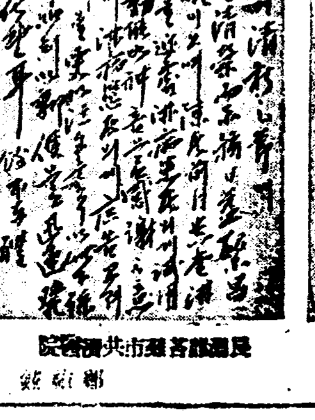
竹興藥局主 李廷[illegible]

귀당월보에서 보고 약을 주문하여삼년된림질을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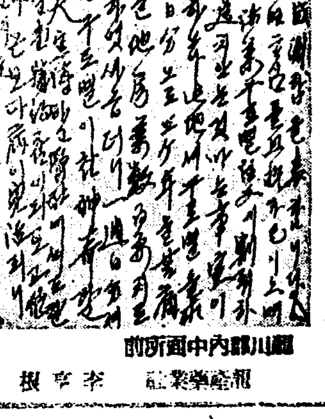
[illegible] [illegible]一文

림질환자에게 시용한비 효를여신으로 다시세제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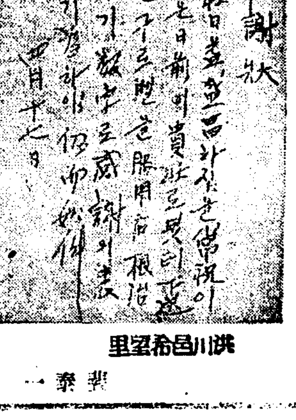
[illegible]

수백원업생 삼년된림질을 일주분으로곳치고 귀사특약점이 될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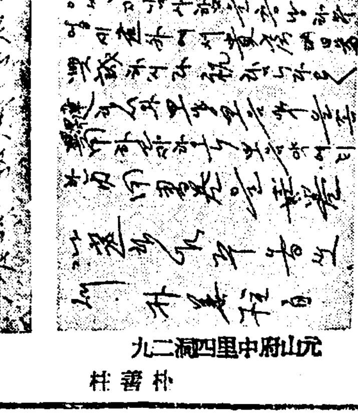
[illegible]川郡內中面所前 [illegible]藥業社 李亨根

림질을 고치고 귀사의 번영을늘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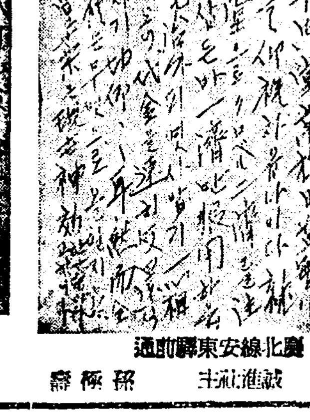
洪川邑希望里 [illegible]

림질을 근치하고 보약에 대한설명서를 도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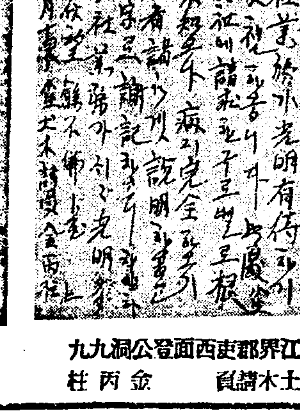
元山府中里四洞二九 朴善柱

두제중 한제로 림질이나 어 한제는반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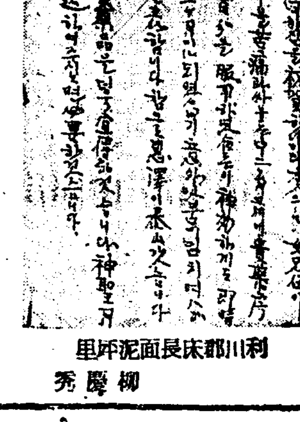
[illegible]北線安東驛前通 [illegible]

자기나흔 효협으로 림질흰 자마다 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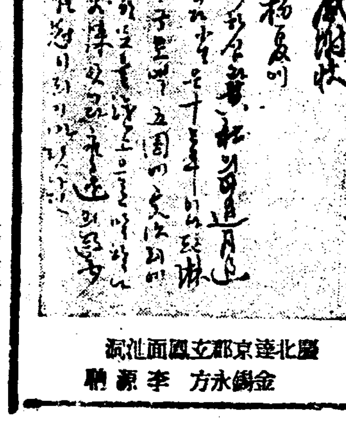
江界郡吏西面登公洞九九 土木請員 金丙杜

오륙년된대하중이 일주 일분에낫고임신삼개월



利川郡床長面泥坪里 柳慶秀

십삼년된림질이 오넜어 치로 완치돼



慶北達京郡立國面池洞 金錫永方 李源聘

家庭

하나둘 하나둘
삼사자리에서 할산모의체조
삼칠일도누어백이자면큰일 그리고 한평생문제도된다

애기를 낳지 세일혜까지는 꼼짝 안코 드러누워 잇서야 한다는것이 재래로부터 우리네들의 상식이엇습니다 요사이 서양의술을 배호는분들까지도 거기대하야만은 아모런 반대를 말슴하지안하얏습니다。그러나 수무하로동안 도모지 쓰지안코 놀리기때문으로 궁둥이나 팔뱃가튼데의 근육 즉 힘줄이 늘어지고 우그러들고 무리해지지안습니까? 그결과 장래 부부간 사사로운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안켓습니까? 최근에 와서야 그러타는것을 알게되얏답니다。그래서 애기갓나흔 부인네들에게는 간단한 체조가 필요하다고 떠들게 되얏습니다。

운동이나 체조라면 학생들만이 해야 될것처럼들 알지만은 그것은 잘못입니다。더구나 애기나이하는부인네들에게는 운동이나 체조나 아조말도 못 부칠것처럼이지만은 그것도 잘못입니다。외국서는 어른도 매일운동을 일과삼아서 해나갑니다。물론 아들딸을 주렴주렴 가지고 잇는 늘그신 어머니들도 운동을 의례히 하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그러고 운동이라면 반듯이 롯볼이나 차고 스케트나 지처야하는것도 아니올시다。요사이정말체조라고 하는것도 조코 그것을 좀더 간편히 주리어하는것도 조습니다。우리네는 무엇보다도 몬저운동에 대한 관념을 뜨더고치지안하서는 안됩니다。그래서 일반가정의 안악네들에게까지 두루두루 보급시키지안하서는 안됩니다。

×

그런데 우에서 말한바와가치 애기를 갓나흔 부인네들은 특별히 운동이 필요합니다。맨처음 독일서부터 그러케해보자고 떠들어지금 동경서도한두병원에서 시험해보앗더니만은 그성적이 대단히조터랍니다。그런데 힘줄이란쓰지 안하면 못 쓰게 되는것이 아닙니까? 근한달이나쓰지안코 둔다는것은 그점으로보아서 해될것이 분명치 안습니까? 그런운동은 독일보담도 일본내지나 조선에서더 필요할것이 사실입니다。산후에는 흔히 팔다리를 못쓴다든지 골반근처에 다소간고장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수가만흔것은 전혀 그러케로 그만한 폐해를 업새지 안하서는 안됩니다。그러나 운동이라고하더라도 어썬 운동은 재미업습니다。적당한 운동을 시킬것입니다。

×

(一)무릅을 벌리고 드러누워 천천히 힘을 주어 가며 그것을 밋부치도록。손은 그것을 방해할뜻이 그사이에노코。

(二)무릅을 맛부치고 드러누워서 그것을 벌리도록。손은 그것을 방해할뜻이 양편다리에 팍 부치고。

(三)다리는좀오그리고궁둥이는땅에대고 누워서는 등과한께궁둥이를 띄우도록。손은 양편으로 쭉 펴고。

(四)몸을 쭉 펴고 누워서는 다리를 오그렷다 폇다하도록 손은 머리위로 빼덧다하면서。

(五)꼿꼿이 일어서서 잠간 궁둥이으로 치켜올렷다하면서 잠간식 심호흡을 하는 것도 조코

(六)꼿꼿이 일어서서 팔을 펴다 오그렷다 다리를 벌리엇다 부치엇다 하는것도조라 그러나 열이 잇거나 해산하다가 상처를입거나 한 산모에게는 대금입니다。그것만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齒科에서 본 우리네건강문제 ②

세부란스齒科硏究室 金喆庸

一、태생기(胎生期)에대한주의 대게태아에발육은 임신한지사십일경이되면 생하는것이니 그때에 어머니되시는이의 섭생법(攝生法)이란 참으로 어려운것입니다 특별이 임신한지 륙칠개월경이되면 태아의발육이 날노날노 변하야짐을 따라 그중에도 치아와골조직(骨組織)을 맨드는 『칼슘』(石灰)을 태아에게배앗김으로 적어도 하로에『칼슘』〇、六八『그람』(瓦)은 잡수서야 될것입니다 즉『칼슘』에속한 음식물의 례를 들면 우유 계란 배채 과실등이요 그외에 엽류(葉類)즉 린성분(燐成分)을 만히 섭취하시게하고 그외에 간유(肝油)등을 만히 잡수시게할것입니다

二、포유기(哺乳期)에대한주의 출생후 약일개년이 되기까지는 대개어머니의젓으로 충분히 영양이되는대 참으로 이시기에는 발육이 왕성하야 집니다 독일의『뢰저』박사는 말하기를 젓먹을때 즉포유기가 길면 길수록 그아이희 골조직(骨組織)이며치는 더욱 튼튼하야진다 하얏습니다 그러나 그아래로 동생이 생기거나 또는 어머니되는이의 건강상태가 원만치 못하면 도저히 어려울것입니다 따라서 주의해야할것은 늘입안을 청결히 해줄것인대 대개백배쯤되는 붕산수(硼酸水)나 一五〇배쯤되는 식염수(食鹽水)로 젓멕인전후에 입안을 소독한 랄지면에 뭇처서 씨서주면 조흘것이오 유방(乳房)도 역시 젓멕이기전후에 씨슬것입니다

三、유년기(幼年期)에주의 이때에는 벌서 아래우에 십개식을 가진 유치(乳齒)를 갓게 되얏스니 가장 주의하여야 할것입니다 하여간 이시기에 음식물섭취를 힘잇게 규칙적으로 사용한다하면 치아가 드러잇는 턱뼈라든지 입주위에잇는 근육 발육이 잘되여 제아모리 구든것이라도 잘씹게될것입니다 역시 이때주의식할것은 이상말삼드린 태생기의 어머니가 만히 섭취하여야 하는『칼슘』(石灰)비타민가튼것을 만히 섭취도록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고 이때즉만륙세가되면 제일구석어금니(一名六歲臼齒)가한개식나오게되는데 일평생을두고 갈지안는 이 영구치(永久齒)니마치 일꾼주의해서 충치가안되도록 할것이며 이로부터는 유치(乳齒)가 영구치(永久齒)로변하게됨으로 적어도 삼개월이나 륙개월에한번씩 전문의사에게 진찰를맛는것이 조흘뜻합니다

四、소년기(少年期)에대한주의 이때는 즉새로난 영구치에관한 주의가되겟스니 유치와 달나서 일평생을 가치사람갈 중책(重責)을 가진것이니만치 더욱 주의안하면 안될것입니다 즉 이때에 충치되는률(率)이 통계적으로보면 제일만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일반가정에서도 잘아시는바와가티 이맘때가되면 한참 자라는힘이 만흠으로 늘一영양이 부족될적이만습니다 역시주의할것은 이상에 말슴한거와가트나 특별이 니닥는법을 교육해야할것입니다

校門을 등진 동무들 ⑥
락타산등성이 놉히소든『동덕』
올해도사십명을세상에보낸다

同德篇

동덕녀자고등보통학교는 장안의 잡음을 피하느라고 동대문밧 창신동뒷 끝목 산미테다가 핑장히 큰집을짓고 소화팔년십월엽나흔날 교사신축락성식을겸하야 창입이십오주년 축하회를거행하엿다는데 금년으로서 제이십이회 졸업생을 사회에보내게되엿다고합니다

다라우에 언저노흔듯 거만스런교사와 눈이모자라게 넓으운동장은 이즈러짐이업시 잘조화되엿으나 생도들의 창작품인듯한 때일흔 눈사람의 꼴은 우습다기보다 가엽게 생각되엿습니다

용희이변이면 옛날얘기입니다다리재국씨 김인회녀사외 여러분의 발기로 사립동덕녀자의숙을 창립한것이 처음발이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것이라고합니다。

현교장인 조동식(趙東植)씨는 해마다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에게 건실하고 쾌활한녀성이 그리고 또 조선이 요구하는녀성이 되여지라고 항상 말슴하신다고 합니다

현재 재학생은 삼백오십팔명이고 금번졸업생은 四十一명이라고 하는데 가정에 드러갈사람이 열여덜명、상급학교에 열두명 그밧게 최한순(崔漢順)양 한양은 서대문금융조합에 취직하엿다고합니다、최양은 함경남도 홍원래생으로 다재다능하며 못하는것이 업슬뿐아니라 일회부터 사학년까지 빼지안코우량한 성적을 가지고잇다고합니다

그외에 리연세(李娟世)양도최양에 못하지안는재조를 가저서 공부는 물론이고 글잘쓰고 정구선수요 또부장의 직분을 가지고잇는만큼 동무들을 지휘도하는 솜씨도 대단히 능난하다는바 경성사범에간다고 합니다

피풍선수권자인 차덕엽(車德燁)양은 동경체육전문학교에가고 배구선수 한복수(韓福守)양은 동경녀자의학전문에가고 롱구、빙상에선수인 허국(許菊)양은 리화전문학교에간다고합니다

—졸업자씨명—

姜卯玉 金容姬 金順泰 閔聖媛
金學淑 李明淑 車德燁 咸英嬿
金順心 朴孝俊 金壽愛 柳秉伊
李鎭伊 崔蘭石 兪春景 禹孝金
金茂植 崔學順 李貞順 許 菊
李明淑 李春子 鄭良淑 李亞可多
河金仁 玄德惠 白南姬 金正媛
鄭福守 柳銀玉 李喜鎭 安喜燮
李娟世 金淑卿 申鉉淑 金德順
成玉子 李光淳 安明善 李子順
周順男

천절하고 눈치빠른사람 단발녀성은문제

和信百貨店

아프로 시관이 준공되면은남자점원도 만히늘려니와 녀자점원도 만히늘것입니다。위선녀점원 한이십명을 모집하겟습니다 매변 일정한 규정의 인원을 모집하는것이 아니라 죽가를하거나 사고로 퇴사하게 되는일이 만흠으로 그결원을 보충시키기 위하야 보결원을뽑습니다

녀자점원 희망은 중등학교졸업정도입니다만 주장 녀상출신을 만히 씀니다。물론 신체도 건강해야 하겟지만 체격도조코 손님에게 조흔인상을 가지도록 인물도 안보는바는 아닙니다。그리고 제일 손님에게 친절히하며 눈치가빨나서 손님의 의향을 잘마추어 물건을 내노와야 되니까요

그러고 결혼한녀자는 집안일까지를 한꺼번에 감당 하기가 어려우니까 미혼녀자만을 취하게 됩니다

의복에 잇서서는 일정한 빗갈로된 사무복이 잇스니 반드시 그것을 입어야 합니다。안경가튼것은 자유로되 아즉 조선사람은 단발한 녀자를보면 이상하게도 서툴니 보기때문에 그정만은 고려합니다 그밧게 호온양복을입거나 머리를 지지고 화장을 잘하는것은 다 어떠튼지 손님에게 친절하며 총명이 방정한녀자를선택합니다

童話 이상한 파랑새 (三)

崔秉和

이소문을드른 바르트는 즉시 임금님압헤나가서

『저에게 맛겨주시면 조흔록하여드리겟습니다』하고 말하엿습니다。임금님께서는

『그러면 너에게 맛기겟다。우리왕의대보다도 더잘하는 음악대를 불너다주길바란다』하시고 즉시 허락하시엿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또 말하엿습니다。

『파랑새야! 내소원을 드러다오』하고 말이끗나자 어데로서인지 음악소리가들녀오드니 얼마안되여서 음악대가 임금님압헤 나타낫습니다。

임금님을 비롯해서 여러모인 손님은 엇더케 깁버하얏는지 몰느겟습니다。너무깁버하신임금님께서는바르트를위하야 일부러 무도회(춤추는모임) 까지 여시고 꼿가티 아름다운 공주와 춤을 추게하시엿습니다。

무도회가 끗나자 바르트는파랑새에게 명령하야 세상에서귀한것을 대접하엿습니다。여러사람이 맛잇게 음식을먹고잇는 동안에 파랑새는 아름다운목소리로 지저귀고 잇섯습니다。

그리고 또잔채가 끗나려할때 바르트는 파랑새에게 청하야손님들에게 보석을 한개식 선사하엿습니다。

신통한파랑새를 보신 임금님께서는엇더케든지 파랑새를 손에너코 십호셔서 임금님명으로 바르트를 불너드리서서

『돈을 얼마나주면 파랑새를주겟니』

하고 말슴하시엇습니다。

『돈으로 팔수는업습니다』

『그러면 파랑새를가진 이대로 밧구겟느냐』

『그러케도 안됩니다』

『자ー그러면 사방백리의 밧과 말일만마리와 밧구자』

『그래도 불쳔합니다』

『그러면 엇더케하란말이냐』

『그러면 제가말슴드리지요。악가저와한께 춤을추시든 공주님을 저에게 주십시요』하고 말하엿습니다。임금님께서는 원체 그 파랑새가탐이나서 대人바람습하시고 즉시 공주를 불르서서 『그래라 너에게 주마』하고 말하엿습니다。그래드니 공주는 갓 지난 이약이를 말슴하기커녕 또바게 얼굴빗을 변해가지고

『못처럼 아버지의 소청이시지만 만일 그것이 무서운 요술쟁이의 새인줄도 모르겟스니깐』하고 잘 듯지 안엇습니다。

『너는 항상 산호의 직힘을 목아지에 걸고잇지 안느나 그것만 잇스면 념려업다』

『그러치만 그냥반이 악마이면 산호의 직힘도 소용업지안어요』

『잔귀를 물리치는 초마가지고잇스면 가령 악마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 두려울말이냐』이러케 말슴하시면서 임금님은 공주의손을잡고 바르트에게 막기셧습니다。공주는 할수업시 바르트를 따라가게 되엿습니다。

바르트는 훌적 말을탄다음 공주를 데불고 길을떠낫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신하랑신하는죄다 대궐에 불너노시고

『자! 나는 악가 그젊은사람이 한것보다도 더 신기한것을 보여줄터이다。더 자세히 파랑새를 보아라。나는 이파랑새를 엇기위해서 내귀여운공주를젊은사람에게 두엇다。꼭 이파랑새는 이세상의 보물을 이곳에모다 가저다 줄것이다』이러케말하고 새장을 드렷습니다。

그러나간 지금까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고잇든 파랑새는 갑작이 웃쳑웃쳑 커지고 빗은 회색으로 변햇습니다。그리고 깜작놀나서 바라보고게신임금님의 룸을 엿보드니 갈구리가티 끕부라진 주둥이로 뚝경을 열드니 하날을 향하야 날너올나가 버렷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임금님께서는 말슴을 못하셧습니다。신하들도 기가 막혀서 임금님을 위로하지 못햇습니다。그러나 임금님께서 너무 욕심이만흐신까닭으로 귀여운 공주님까지 주시고 밧구어서 죄가 나린것으로 생각하엿습니다。

또한편 바르트에게도 큰일이 생겻습니다。다른동리에 이르자 바르트는 공주에게줄 옷을 살려고생각하고 의복전에들어가서 옷을사노코 돈을 치르려고 지갑을끄내보니깐 한푼도 들어잇지 안엇습니다。

이것은 별일이다하고 무심코 자긔입은옷을보니깐 금과 은으로 수노흔 비단옷이 전에 새장장사할때입엇던 누더이옷으로 변해젓습니다。그리고 가개압기둥에 매여두엇든말도 어듸로갓는지 보이지안엇습니다。

이꼴을 본공주는 일변놀납고 일변무서워서 대궐로 죽을힘을 다하야 도망햇습니다。

그 이튼낫처 바르트는 또다시 옛날새장사로 도로되여가지고 이동리로 저동리로 자기가만든 새장을 팔너다니지안으면 안되게되엿습니다。

이이약이가 얼마안되여 세상에 좍허지자 사람들은 임금이나 바르트나 너무욕심을부리다가 나종에는 그꼴을 당햇다고 말하엿습니다 (西班牙童話)

우리차지

창섭이가 보낸 편지를 바더보고 제비는 얼른 답장을 썻습니다

제비의답장

『네편지보니 반갑다。지금이라도 날러가고 십지만 떠날 형편이 못되는구나。래래달 사월이되거든 떠나마。그동안 부듸 공부 잘 해서 이학년 돼라』

(글쓴사람 왕방울)

가정의학

問 폐병일까요

삼년전부터 가삼상세의 남자이온대 작년삼월에 가삼을다친는데 그후 감흘도지고 쑤시어서 곤난이올시다 혹은혈담이 나는때도잇습니다 숨도가부고담도성합니다 폐병은 아닌가요치방과 병명을하교하여주시요 (市內 讀者)

答 폐병인것갓습니다 치료방법은 절대로안정하게하시고 영양가치잇고 소화되기쉬운 음식을 택하야 자시도록하시요 약으로는 처방은그시그시 증세에따라 일정치못한고로 가르켜드리지를못하와 유감이오나 몸을보하난의미로『로니큼』『하리바』(肝油)『빠르토一전』등을자시게하시고 축접으로 의사의지도를 바더치료하여야될거십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問 륵막염자리가압허

삼년전에 습성륵막염으로 신음하다가 곳치로받은결과 건강이 회복되엿사오나 그후 지금까지 환부가항상 압퍼오니완치못한 까닭인가요 근사변되오늘까지 환부가 압흔것이 엇젠인가 자세히하교하여주시요 宜川 一讀者

答 륵막염경과하야 완치되엿다하더라도 그부분에 유착(癒着)이 생기게되면 수년경과후라도 숨을쉴때마다 맛치게됨니다 다른고장이업고 단순히 그것뿐이라면 걱정하실것이 업는줄로 생각합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新春懸賞當選小說 轉落 (十九)

車自鳴 作 金熊超 畵

『주긴 누가주니、저부터 굶어죽을 형편인데!참 불상하긴해 강좌수첩이 잇다금밥뎅이나 주어멕이는지?』

『밥뎅이가다 뭐니 강좌수가 주계한다든!저번에두 주다가 강좌수에게 들켜서 혼이낫는데 그랴면이 올에는 엇더케 살녀는지?』

『노멀정이두 노멀정이지만 달은사람들도 다들야단낫서!이까짓 풀뿌리들이나 캐가지군 입못치르겟수 우리두 량식이라고 세전두 못견딜텐데!좌수네가 또 장리들이나 줄나는지?』

충가이는 머리를 숙인채 이러케말하고 한숨을 가늘게 내쉬다

이순된 어린양가혼 꾸덕란 산수골 아가씨의가슴에도 생활에 대한 수심이 첩첩이싸인모양이다

『장리야 안주겟니 설마!』

양전이는 미안한어조로 대꾸룰한다。

『글세 참 너이는 걱정업서서 조켓다 우리두 누구네 서포사리라도햇드면 올갓흔해엔 겨정업슬걸!』

『아이구 그게 랩조타구 서포사리갓흔걸한다구 그러니!난 지금 하긴하지만 넌덜머리가 난다 얘!』

『그래도 발품을거정은 업스니 조치안니!』

『그러킨하지만 세상에 못할껀 서포사리드라 수모는 잇는대로다밧고…그래도 그거나마 오래부터잇서야 될터인데! 좌수의눈치가 아무래도 우릴 내보낼녀는것가태 왜너두 들엇겟구나 저번에 저물방아ㅅ꼴차백인지한 사람네가 우리대신 서포사리들어온다고한 소문을……』

『오一거 치롱인 한사람네말이지!그때 너의 어머니가 가서 싸웟다드구나 그래 엇더케됏니』

『패닌소문이야 그사람넨 들어올맘도 안먹엇든게드라…』

『그러켓지!아무리 강좌수래두 너입 내보내기야 하겟니!』

『글세 그러키나햇스면조켓는데 아무래두 나가라고 할것가태一 요좀은 공연히 조고마한일에도트은이들은 할수업다고 아버지보고 펵펵거리기만하구一』

충가이는 얼굿 양전네가 나가고 자긔네가 들어갓스면 조켓다는 생각이슨것다 그러나 웃간 그런마음을 먹은것조차 미안한생각이들어서

『강좌수도 너무깍정이야 엇저면 그러케도 린색해!울가른해두 도지좀 안감해주고!참내가 이런소리하드라구 하지마라!』

하고 참엇든 강좌수의 흉을 보기시작한다

『애一느굴 어린아이로 아니 그런소릴 무어라고 녀길거리!』

『그러구 참애 저번 강좌수가 몰방아ㅅ골 과수ㅅ댁네 마당질하는데갓다가 망신을 톡톡이당햇다지 아이구 엿갈루 그저게 집이라면 사죽을 못쓰구』

『그말해뭣하니 요즘은 괘니 날보구두 통그러진수작만 런덩하고 야단이야애!』

충가이는 이말에 쫑게웃드니

『그러기 너두어서 시집을가야해 괘니 어물어물하다간 큰일난다!』

하고 양전이 엽구리를 쿡 찔은다

『그애두 큰일이 무슨 큰일이니!』

하고 양전이는 살작 얼굴이 붉어젓다

『좌우간 넌 조켓드라 치롱이가올해엔 청혼안하든?』

『이이그 얘는 내종엔 별소릴 다하누나!』

양전이는 얼굴이 더욱붉어지며충각의 넙적다리를 꼬집엇다 그러나 속으로는 은근히 오래 못본 치롱이의 얼굴이 엇전지 그리워젓다 두처녀는 이러케 한참속은거리다가 다시 일어나서 풀뿌리를 캐기시작하엿다

이제는 아주 산는생이까지 올나왓다 눈가는곳마다 뾰족뾰족한 산봉오리만 보인다 그들은 차츰차츰 몰방아ㅅ골편으로 옮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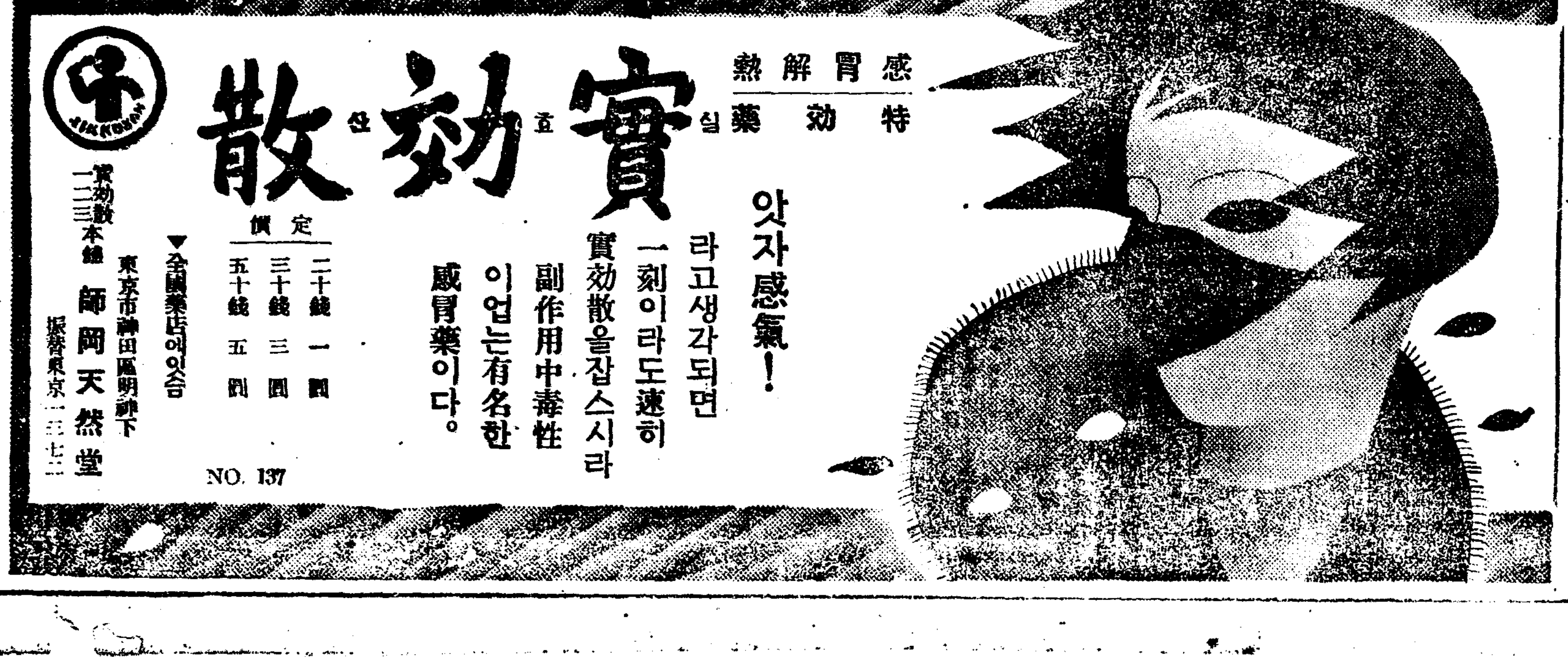
점심때쯤 되여서엿다 양전이는 몰방아ㅅ골 뒷산봉생이에서 문득조人겨울에 상으롱암이 소복이 싸여잇는것을보앗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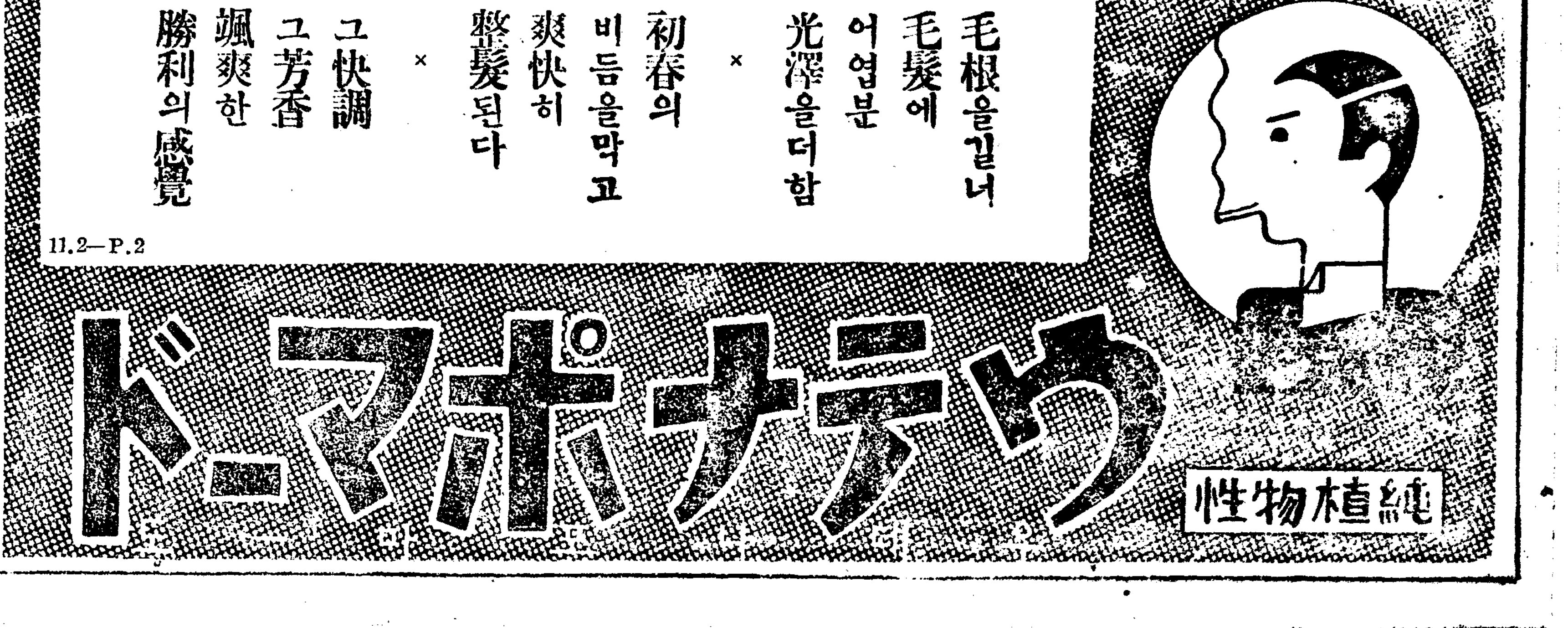
『이게 뭐야?』

암서가든 충가이가 힐긋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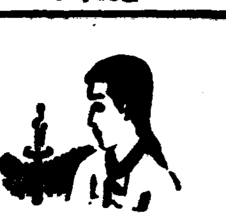
『머ー머이야!웅그것 그게깡노는거아니니 치롱이가 놋는게라드라!』

양전이는 치롱이라는말에 다시 가슴이 울렁뛰엇다 그는 자긔도몰으게 한번 먼산을 바라다보고 한숨을지엿다





11.2.17 C.C.LIBRARY



戲曲 春香傳 (十三)
【禁無許上演】
柳致眞 脚色

夢龍 마루에누으며 기지개를펴다 아—공부하기실혀죽겟네。그저 공자맹자가 내원수야。

(안에서 月梅와 香丹이 소리지게 웃는소리들린다)

春香 호호호……도령님 그러케 공부하기가 시르서서 어떠커시랴오

夢龍 너하고 둘이나가서 놀사나 지호랴?

春香 아이구 숭해랑。그러시지 말고 나하고 마조안저 바누질이나 배우시지오。

夢龍 (벌컥이라나면) 오—랑。그것 조흔말이로군。세상사 다 집어치고 외좃을 너하고 마조안저서 바누질을—하하하—그것참 조흔말이다 (하고 웃는다) (月梅와 香丹 우스면서 나온다)

春香 (夢龍에게따라우스며)호호……에그 숭해라。정말 바누질을 하시겟소?

夢龍 내가 그럼 바누질을못해? 애 절에서는 중들이 으레 제손으로 옷을짓더라(月梅 나와서 香丹를 전송하고다시안으로된장)

春香 그런생각마시고 방에가서 그책이나외세요 나도 도아드리께。자요。이러나요。(夢龍의팔을끄은다 夢龍겨우끄을녀이러난다)

夢龍 (春香의팔을붓잡고 彼女의 얼굴을 뚜려지라고 되려다보드니)오—내사랑!(하면서 며친드시 春香이를 떠쉬안는다)

春香 에그 아스시오 그만놔요 누가봐요。

夢龍 (春香이를 풀에안고 거닐며 노래한다) 어허둥둥 내사랑 이리보아도 내사랑。저리보아도 내사랑。안저라 보자 내사랑。서거라 보자 내사랑。안꼬보아도 내사랑。노코 보아도 내사랑。사랑사랑 내사랑。어허둥둥 내사랑……

春香 (어린애처럼 발을 버둥거리며) 에그 좀 아스시오。어머니가 나오오 나려노호오。

夢龍 허허허……보면어떼

春香 부끄러워요。

夢龍 (春香을 안으냥 庭園나무 등걸에 걸려안는다)

春香 내가 무거우시지오 도령님?

夢龍 너를 안허보니 어린애생각이 나는고나。아마 네가 나은애기는 서시오진이보다 더 열보렷다

春香 에그 망측해라。지금 우리가 애기를 나흐면 애기가 애기를 나혓다고 남들이 웃지안켓소?

夢龍 남모르게 저방에다가 감초아노코 우리둘이만 드려다보지 그러면 누가 알겟냐。

春香 그러케 어느새 애기가보고십소?

夢龍 네가 나혼애기를 얼는한번 안어보고십다。

春香 (시무룩해지며) 애기가나도 걱정이오。

夢龍 왜?

春香 첩의자식이라고해서 호적에도 못오르고 나모양으로천덕군이밧게 더되겟소。어른이되도 갓도 못쓸거공。(얘허하다)

夢龍 언짠어말어라。우리가 육례를못이루엇다고 그러느냐?

春香 나는 첩이야요。호적에도 못올라요。

夢龍 그까짓 키키한 호적으로 무엇말려죽으것이나? 우리두리맘마저 백년을 맹약하엿스면 그만이지。또 누가 널더러 첩이라겟니? 그렁사람업다。네 뜻만 변치마려라。

春香 제뜻이야변하겟소 도령님뜻이변햇쓰면 변햇지。

夢龍 네뜻만 안변하냥이면 나는너의집 터부사리의 텃보사리놈이 되여도 조타。

春香 도령님은 그러서도 도령님의 부모께서 몰라주시면—

夢龍 부모가 무슨所用이냐。네가나하고살지。우리父母하고살테냐。걱정말어라。그리고오늘부터서라도 나마힘써 공부만하면 나도 대과급제할수잇다 그러면 나도세상에 나서서어른노릇도할것이 아니냐。그때만되면 우리는 우리 의견대로 살수잇다。우리들의 세상이 온다。춘향아 조금도 언잔어 마려라。세상이변해도 너는 내지어미오 나는 네지아비다。

(하며 春香의 가는 허리를잘끈안는다)

(이때 房子달려 夢龍과 春香이 안기적에 얼는 떠러저 안는다。房子도 드러오려다가 주춤한다)

夢龍 이놈어 또 무슨일이냐?

房子 야단낫서요 무슨 예과한 소문이 사또귀에 들어갓는지 사사또께서 도령님을 제찬불러드리래요。「이놈이 아마 요즘 외방에 작첩하야 청루주사에 침범하는것갓다 이런고이한놈이 어디로 빠저 돌아다니냐……」이러시겟지오。

夢龍 에그 또 무슨 소리가 아버지 귀에 드러가신게로군!

夢龍 이 망할 자식아! 도령님은 광한루에서 지금 글짓기에 뱃처잇다구 그러지。

房子 암 그랫지오。그랫드니 이놈의 광한루는 무슨 광한루기에 밤낫 가서 들어백혓느냐! 이러시겟지오!

夢龍 큰일낫는걸。……이놈아무슨 다른일때문에 부르시는게아니드냐?

典型을選擇치안흔 自然的리앨리즘의弊害
—文藝月評— ③ 白鐵

廉想涉氏의『失職』(三千里)을 읽으면서 自然的리알리즘의 再考와 그必要를 생각해보앗다 이 常識的問題를 今日에 오히려 反復한다는것은 무슨 過去의人間에 모든眞理를 祕藏해버린까닭에 우리들은 그것을 다시反復하는수밧게 업다는것보다는 우리들은 恒常 언제나 常識的問題를 非常識的으로 解釋하는過誤를 反覆하야 犯하는 까닭이라고 생각하는지 올흘는지 常識問題에 잇서도 例를 들면『이世上에는 돌(石)부스럭이 하나라도 꼭 가튼 돌은 업다 그들이 그들인점을 그리라!』라는 리앨리즘의

眞髓에眞徹했다고 보여지는이 有名한 文句는 寫實의傳統을 니어오는 作家들에게 往往히 誤解되여오지 안엇든가? 안이 플로벨自身까지도 그말을 粗雜하게 밧게는 理解하지못하지 안엇든가? 具體的으로 그리라! 다른文句와 맛찬가지로 그自身이 꼿 的確한 具體的內容과 限界를 意味하지 안하는 이 文句가 自然그대로 그리라! 눈압헤 잇는 平面을 그대로 描寫해가라!라는 意味로 理解된것은 勿論그때에잇서는 조금도無理가 안일뿐아니라 그때와가튼 小說의建設期에잇서는 그意味만으로서도 巨大한 壇場을開拓함이엇다 하나 重要한問題는 그것으로서는 그들의 그들인점을 그려낼수가 업다는것이엇다『폴로벨』은 有名한 그의『보봐리夫人』가운데서『비네』라는 收稅吏의 描寫를할때 그場面이 그場面인점을그리지못하고 그의年中日常의 固定된其態를 그렷으며 農事共進會에서 受賞하는 늙은 農婦의登場에서는 그老婆의손의 그 손인점을 그리지못하고 一般化된 農夫의것을조끔 그려주고잇다 그런部分的逸脫은 그대로

通過할것이라고하더라도 이巨大한 力說의完結에잇서 依例히『엠마』의죽엄이란것을 한캐러스틱하게 노하야 決定지울것이어늘 부질업시 家具一割를 파른金額 十二프랑七十五상팀을 描寫하고 잇을때에 누가 이事實의『自然』氾濫에 對하야 懶惡을늣기지안늘까?이 文藝가 後年에와서 그의『보봐리夫人』을 불태여버리고십다는 悲痛할수업는 衝動을 늣김도생각하면 그理야 또한 當然하얏다고 생각되다! 눈압헤 잇는 모든 複雜한 現象을 創作의世界로서 收拾한作品은 그現象의 最少公倍數가안이고 적어도 最大公約數에依하야 公約된 典型的의것이여야할것이다 이公數의 文學的 形象性을 拒否하는 앨리즘이 결국 平面의 日常的리앨리즘에 墮落되고 그平面、平凡性은作品世界의 여러가지個別的對象을平均率에依하야 度量하는데까지떠려지는것은 當然한順路일것이다 自然的 리알리즘의 傳統을직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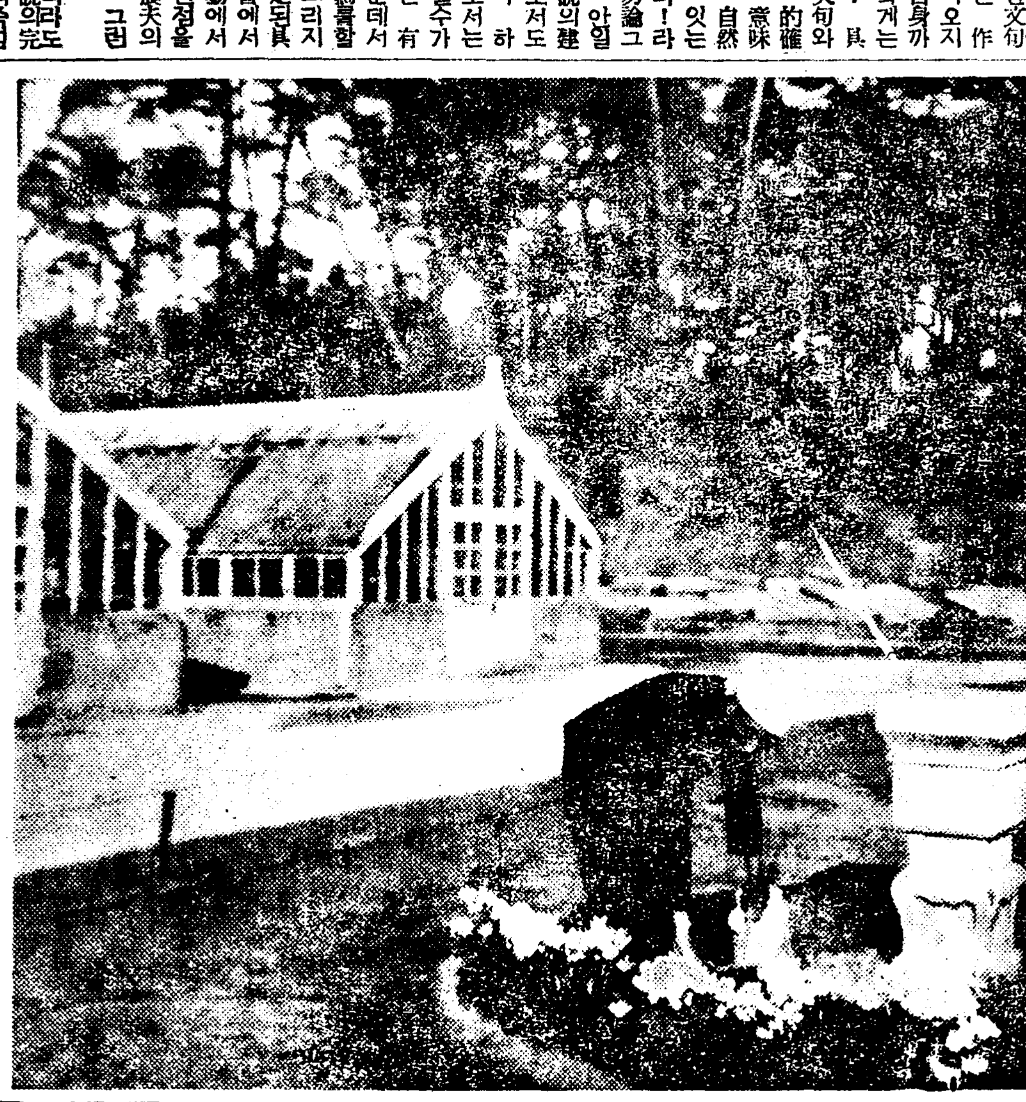
作家들이 겨우 이平均率의 道德까지 到達하얏다는것은 생각하면 그들의 先祖의 垂訓과 大抵 무슨 血統의 關係를 가젓슬일까。

廉氏의 全作品의 斷定은아니라도 적어도 이『失職』만은 그平均率에依하야 作品世界의 印象을 될수잇는대로 平凡化한作品이엇다

老熟期의 作家라 文章과 對話의選擇等에잇서 未熟한新家의 눈에 缺點이들어날理가업고 事件과 스토리이의 運移에 잇서도『이지고잉』한 安易注意 壓하야 一見自然스럽은作品으로 보임에 不當하고 이作品이讀者압헤 아무깁흔印象과 切實한肉迫力을 주지못하는것은 이作品이 그平均率에 依하야 平凡化되어잇는까닭이라고생각된다 이作品에 잇서는 取扱하는 各人物사이에 무슨 特殊한 典型도選擇치안흐며 明確한境界線도 記하지안고 各人物들의 輕重 深淺의 現實的差別까지를 無視하는데서 모든것을 平均히 取扱하고잇다 그뿐아니라 人間과家具사이도 그取扱에잇어 別로

輕重의差別을 두는상십지안다。그러타고하야서 이作家는 人間의心理와性格을描寫하는手腕과 技能이不足한것도아니엇다。……엇거든 아주 업거나 잇을량이면 철저히 잇거나하여야할량심이 자구통이에서얼풀을 내밀기때문에 더창이는약자중의 약사인것이엇다』와가티 짧은 一二行의 文章으로서 人間性格을 熟達하게 그려보여준곳이 가끔눈에 띄이는것만 作家는 그것을 단순히斷片的 偶然的 印象으로서 孤立식힐뿐이요 作品全體에서 關聯된 過程으로서 發展을 식히지안엇다 人物의 性格으로서 例示하면 主人老婆의 奸惡한 典型性格으로 얼마든지 發展식힐餘裕가잇슬뿐 아니라 依例히 發展식혀야할것인데 조금도 그것을 追求하지안코 안해가 老婆의 術策에 속아서 逃亡을 하얏다가 도라오는 契機와 그心理의 轉換을 기장深刻히 描寫하는곳에서 讀者의 心琴을울닐곳인데 거기서도『그말을뭇지는말어주세요!』等의간단한 抽象的說明으로 밤패막이를하고말엇다『그들의 그들인 점을그리라』는 文學의 課題가 이平均率의 리알리즘에 依하야 實現되지못할것만은 實로

明白한 事實이다 그러타고해서 그것은 自然그대로그리고 平面그것을 描寫하는데서 實現될것도안이요、그것이 作家의主觀한 個性的集成인 境遇에 限하야 그作品自身이 어느듯典型的인 境遇에만 그들의그들인점의 特殊한性格이 表現될것이라고생각된다 또한 이 個性과典型性을 忽視하는데서만 自然的리앨리즘의弊害에서 作品을救해낼수잇슬것이라고 밋어진다。



時調 畫帖 (其一)

전원에 봄이드니 내할일이 전혀만희 꼿남근 뒤 옴기며 약밧흔 언제갈리 아희야 대비여오너라 사립먼저 겨르리라。 (成 大 谷)

時☆事☆小☆感
두가지問題에對하야 ② 李清源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들을조아 自由主義者들은 남은形勢를 固執하고 自由와 獨裁를 機械的으로 對立시켜노코잇슴으로 이것은 적어도 現階段에 잇서서 歷史的으로는 虛僞요、實質的으로는、生産의 無政府狀態가 支配하고잇는 現代的秩序를 永久化할려고하는 僞瞞이며 딸아서 反動的인것이다。

다시말하면 부르조아的 自由主義는 反動的이나 부르조아的 自由의 諸要求는 進步的이라는것이다。이곳에 問題의 全中心이 가로노혀잇다。

그런데 在來 이나라 新進學徒들은 모—든데 唯物論云云하면 萬事가 解決되는듯이 理解한듯십다。그러나 우리들의 科學的認識의 武器인 唯物辨證法은 어떤 天才의골속에서 유—토피아的으로 製作되고 發展한 獨斷的敎理가 아니고 現實의 政治過程의 批判的把握에서 發展하고잇는것이며 그限에 잇서서 이것은 科學的認識과 活動의指針이 되는것이다。다시말하면統一物의 分解와 그矛盾에찬 構成分과는」調理과 實踐이 辨證法的으로 統一된 우리들의 哲學 唯物辨證法의 本質이며 이것은政治라고하는 統一物의 分解와 그矛盾에찬 權力을 둘러싸고도는 諸階級과의 互相關係를그려고 批判하여야하는것이다 그러치안는限 암만 自由主義를 現實的 全體的把握의 分析하야 평장히分析된다구 하야도그것은 自由主義의本質的 把握의『科學的態度』는 될수업는것이다。

3、大衆化와 流行化에 對하야

筆者는 某誌新年號에『……稱古現象은 流行化하고 眞正한에術은 大衆化하엿다』고한일이잇다。現象의 大衆化가 그대로流行化라면 우리들이 流行化와大衆化를 區別하지못한다면 그것은좀이상한것이다。現象의大衆化가 同時에流行化를 伴奏하는일은잇다。그러나 現象의 流行化가 同時에大衆化를 伴奏하는일은업다。우리는流行의 特徵的內容을 正當히 理解하며『科學的階段』을 戰取하기爲하여서는 인제 그內容을 分析할것이다。

流行! 그것은第一人間의 模倣心理에基因되는것이며 딸아서 이것은 模倣되는것에 對한 認識도 批判도 評價도 업는것이다 그러면 以上에서 우리들은 人間의 模倣心理云云하엿스나 이것은人間에 固有한것이 아니고 오죽 그當時의 社會的 基本的構造에 制約밧는것이라는것이다。그러므로 지금과 다른 社會構造에 잇서서는 模倣心理云云 업서지는것이다。—그러므로 流行은 盲目이다。이곳에 일은바 流行의 特徵的인 內容이 잇는것이다。一例를 들면 年前 學生諸君들 사이에『납팔바지』라는것이 大流行하엿다 그것은 바지통이 납팔처럼 넓음으로 납팔바지라고하엿는데 그것은 걸을적에 不便하며 딸아서 非衛生的이며 外觀上으로도 곱지못하고 經濟的으로도 더만하든다。그럼에도不拘하고 學生諸君들은 이『납팔바지』를 모입으면 時代에뒤떨어진것가티 生覺하고 經濟가 豊富하지못한 學生들은 남의『납팔바지』를 빌어입고 네거리로 橫行하는 形便이엇다。

다시 말하면 어곳에는 流行되는그 自身에 對한 認識도 批判도 評價도 업는것이다。即流行은批判을絕對化하여나는것이다。딸아서流行은 事實主義의 批判을 가지고 그當時의 支配的인勢力이 그의方向을讀續하고잇다는것이다。그럼으로 그當時의支配的인勢力이 進步的인때에는 流行도 進步的이고 그勢力이 그러치안은때에는流行도 그러치안은것이다。

養疴雜錄 (四)
姓氏
碧初

中國古代에는 姓과氏가 서로달려서 둘이잇섯다 姓은 所生을表明하는것이니 婚姻의區別이되고 氏는 貴賤의區別로 생긴것이니 姓의 支系라하야다 例를들어보이면 孟孫叔孫季孫等이氏는 서로달르나 姓은 다가티 姬姓이어다 氏란 貴賤의 區別임으로 賤한者는 본래氏가업고 氏가잇는 貴한者라도 罪로因하야 氏를빼앗기는 일이 잇섯스니 左傳의『墜命亡氏』라한것이 이것을 일음이다 다시말하면 氏는 氏族內의稱號이엇고 姓은 氏族全體의 稱號이엇든것이다 女生爲姓이라하고 古姓에는 姚姒嬴姬姞과가튼 女部首자가 만흐니 이것이 太古母系時代의 痕跡일까 後世에 나려와서 姓과氏가 合하야 하나가되어서 姓氏두字를 區別업시 混用하게 되엇스되 婦人稱氏라고 婦人에게는 氏를 用하는것이 古禮라한다

日本은 上古에 大伴、物部、蘇我와가튼 姓이잇고 그뒤에 源、平、藤、橘과가튼 賜姓이잇고 또 그子孫이 繁衍하야 各地로 分散한 뒤에 各其地名으로『苗字』라것을 만들어가지게 되어서 北條、足利、織田、德川과가티 온전히地名만取하기도하고 近藤、遠藤、佐藤、伊藤과 가티 姓과 地名을 半半으로 取하기도하얏다하니 姓과苗字의 區別은 中國의 姓氏區別과 恰似하니 例를들면 豐臣氏는姓을 平이라하고 德川氏는姓을 源이라하얏다 豐臣秀吉과가티 微賤한 出身으로 貴家子孫이랑 姓을 冒稱한者도 적지아니할것이로되 大개庶民들은 近代까지苗字도변변히 가지지 못하얏섯다。

우리朝鮮은 일직中國의 影響을 바더서 三國時代에 中國式姓氏가 생기기 시작하얏스나 新羅末 高麗初까지도 王公貴族에 限하얏는모양이고 高麗中葉以後에 庶民도 모다 姓氏를 가지게 되엇갓다 그러고 奴隸白丁가튼 賤人階級이 姓氏를가지것은 가장 近世의 일인듯하다 李宣顯의 陶谷集에 우리朝鮮의 顯姓、稀姓、僻姓、複姓을 列錄한것이잇는데 이것을 明나라吳沈의著書 千家姓 一千九百六十八姓에 比하면 七分一이 채못되다 그러나 우리의 稀僻한 姓中에 中國에도 업는姓이잇스니 字義에 [illegible]、[illegible]、다가티 高麗에잇다하얏고 [illegible]氏木氏는 다姓이나 百濟에잇다하얏다 이외에 [illegible]氏와 諸譜에잇는 [illegible]氏、[illegible]氏、乁(벌)氏가튼것도 中國에업는姓이들이다 우리의 姓氏에 關한著書는 成宗때 南原君梁誠之가 御命으로 海東姓氏錄을 撰進한것이 始初일것이나 그後에 洪汝河의海東姓苑과 [illegible]의 氏族源流와 丁時述의 諸姓譜와가튼 著名한 著書도잇고 또東國世譜、文獻武譜、鄕綴譜가튼 著者未詳의著譜도만하서 姓譜學의 資料가되엿섯다 우리朝鮮의 姓貫(本)의 細別과 姓譜의具備는 姓氏發生地 中國도 멀리떨어지 못한것이니 靑出於藍而靑於藍이라할까。

{☆}

樂聖 쇄리아핀 印象記 (下)
東京 張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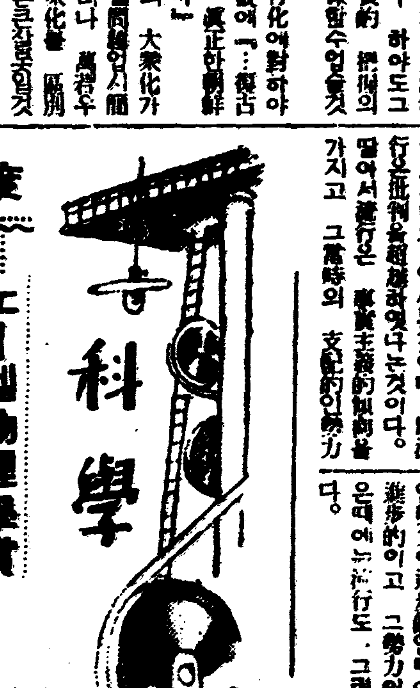
4

쇄리아핀은 歌劇俳優로서 世界의獨步的 主張과 性格的創性의 表現을보혀주는 典型的人物이다 故國을떠난지 二十餘年이 되도록 世界를 漫遊하면서 우는노래 웃는노래 비웃는노래사랑노래 쌋호는노래 英雄詩 勞働詩 民族詩等等 할것업시 조間우에 보이지안는 노래의 記念塔을 쌓아노핫다 歌劇『이골公』中에 빠리톤役과 빠스役의 두가지性格을 노래와 藝術으로 表現하는 壯況한 舞臺를所有함뿐아니라 詩를 形象化시킨 五線속에싸이어잇는 콩나물대가리를 立體的으로分解 設計하는것처럼 解釋해버리는 (오케스트라指揮者가 쇄리아핀의唱法을指揮하지못하고따라간다) 藝術的英雄時代를開拓한無限이낫다 老境에 이르기까지自己의 목소래를 喪失하지안은理由는 그의自然스럽고 自由스럽고 말하는것처럼 부드럽고、氣管으로부터 共鳴되여오르는呼吸法이 上共鳴의 法을發見한까닭이다 同時에 사나히다운 意氣와容姿과 思考性 冒險性 忍

5

耐性 健康性 으로못허 完成시킨 꾸준한 努力을 讚美하고십다 六十歲가 넘은 그는 童心을가지고 靑春의 마음을가지고 藝術家의 樂天性을가지고 人格的均齊를 喪失하지안흘뿐아니라 老衰와 呼吸의關係를 두려움업시 處理해나아간다

偉大한 技術者!
偉大한 個性!
偉大한 俳優!
偉大한 藝術家! 쇄리아핀은 黃金狂世界의 터져숏아 오르는 新世界로飛翔한 祖國을가지고 模範的思想을가지고 文化運動을 하고잇는 마심코리키—를 맛나겟지그리고 資本主義社會의 紳士淑女보다도 新世界의 人間性을 發見한 새生命을 呼吸하고 잇는이들과 때들이 하라버지의 藝術을 똑바로 解釋해줄것을(끗)



科學
1935年度 노—벨物理學賞
제임스·차드윅 그略傳과研究 (一)
都相祿

世界文化의 最大褒揚機關의 하나인『노—벨』財團의 一九三五年度科學賞은 物理學에『제임스·차드윅』、化學에『조리오』夫妻、醫學에『한스·슈페만』、네사람이 各各授賞者로 決定되엿近近 그授與式이 잇스리라고한다。지금에 이네사람의 業績을 讀者에 紹介하는 意味에서 그略傳과小考를 실는것이다。(一記者)

氏는 一八九一年生으로서、今年 四十五歲의 新物理學者이다。일즉이 만체스타 大學에서 物理學을 專攻하고 獨逸건너와서 伯林大學에 얼마 잇다가 다시 本國으로 돌아가서 캠부릿치大學 캐벤디쉬研究所에서 原子物理學을 硏究해왓다。다—알다십히 모—든 物質의

原子는 所謂 原子核이라는 中心部分과 그 核을 周廻하는 몃個의 電子로서 되엇는데、여기서 原子物理學이라는것은 原子核에 대한 考察을 가르치는 말이다。그리고캐벤디쉬硏究所라는것은 英國에有名한 沈默의 實驗物理學者 캐벤디쉬를 記念하는 뜻도 包含해서 一八七○年에 데본쇄이어 公 캐벤디쉬의 寄附와 大物理學者 막스웰의 指導下에 建設한、캠부릿지大學附屬 物理學實驗室인데、歷代의 大物理學者가 이研究所의 所長이 되여잇섯다 現在는 原子物理學의 巨人 라다포—드가 所長職에 잇다。라다포—드時代의 캐벤디쉬研究所는 原子核에 對한 實驗的研究로서 빗나는 特色을 지은것이다。지금으로 부터 約 十年前이다。量子力學의 擡頭로 全物理學界가 動搖되고잇슬때에、이 끔찍한 消息을 아는체도 아니하고 오로지 原子核構造闡明에 邁進한 一派가 잇섯는데、그것은 라다포—드를

總帥로한 캐벤디쉬研究所員 그들이엇다。이 研究所에서 여러同僚의 協力下에 그야말로 十年을 하로가티 耽耽히 考究를 꾸준히 계속해온 제임스·차드윅의 온을 날이 또한 偶然한 事實이 아니다。氏는 現在 이 研究所의 放射學研究部副主任으로서、昨年十月에는 만체스타附近의 리바풀大學 物理學敎授로 被任되엇는데、一九三二年에 有名한 中性子를 發見하여 막다른 골목에 부다치게 된 原子核構造論에 너른 新生面을 보이어 주엇이 不朽의 業績이다。氏는 이 功績에 와지하야 一九三五年度노—벨賞의 物理學賞을 밧게 되것이다。

中性子는 電氣的으로 中性이고 무게가 푸로톤이라는것은 이미 알겟거니와 原子의 質量을과 가튼 分量의 陽電氣를 가젓고 무게가 電子의 그것에 一千八百四十倍가 되는

微粒子인데 普通의 水素原子는 一個의 푸로톤을 原子核으로 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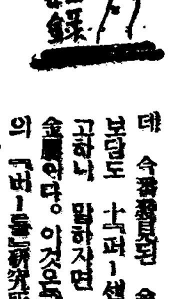
量子力學의 巨擘 하이젠벨그博士는 中性子의 發見에 刺戟되어 모—든 原子核은 中性子와 푸로톤만으로 되엇는데 安定한 原子核은 中性子와 푸로톤이 거의 同數이라는 理論을 發表하엿다 一個의 푸로톤을 原子核으로한 普通의 水素原子는 勿論 例外이다。이 理論은 빠—트레트에 의지하야 多少 修正되어잇는데 이것을 하이젠벨그·빠—트레트의 原子核構造論이라 부른다 이 理論에 의지하면 헬리엄·酸素等의 原子核은 安定한、核이되는것이다。푸로톤이 物質의 基本的 粒子의 하나인것만큼 水素原子核이 매우 安定 할것은 두말할것도 업겟니와、以前부터 알니워진 酸素原子核의 安定한 事實이 하이젠벨그·빠—트레트의 原子核構造論에 의지하야 說明되는것은 무엇보다도 痛快한 일이겟다。

그러나 라듸엄가튼 所謂

放射性物質의 原子核이 빠—타線을 放射하고 다른元素로 變化하는現象 이를바 빠—타崩壞은 原子核內에 電子도 存在한것을 意味하는듯하나 核內에 電子가存在하다고하면 다른 難點이 또한 發生하야 原子核構造論은 드듸어 一大難關에 다다랏다。

그뒤에 차드윅博士와 또한 其外의 여러學者의 中性子에 대한 實驗的研究가 계속되어 中性子의 原子量이 瓦解할것을 說하게 되엇다。即 빠—타崩壞은 中性子가 電子를 放射(放射라고 알어도조타)하고 푸로톤으로 變形하으로서 생기는 現狀이라는 하이젠벨그의 想起를 事實로 맛게되엇다。이것은 매우 重大한 意義를 가지는것이다。그것은 中性子의 電子輻射가 實現되는 事實이라면 原子核에 대한 問題의 大部分이

解決될수잇는것과、또한原子核에 電子와 가튼가벼운 粒子로 되지안코 中性子와 푸로톤가튼 所謂 무거운粒子로 되어잇슴으로 原子核內에도 現在의 量子力學을 適用할수잇는理由가 잇는까닭이다。그리하야 차드윅博士의 功績은 더욱더욱 빗나게 되엇다。



科學 雜錄
새로發見된超輕金屬

【『뉴—욕』에서『뉴—욕電氣協會』의定期會合이 열엿는데 그席上에서 從來發見된 輕金屬보담도 훨신가벼운金屬이새로히 發見되엿다는것을報告하엿다 從來 가장輕量의 金屬이라면 固形水素이노움만 알어왓든것인데 今番發見된 金屬은 이것보담도 十五퍼—센트나가볍다고하나 말하자면 記錄的超輕金屬이다。이것은『리튬』이라는 金屬으로『바—듬』研究所에서 普通電用해서 抽出한것인데『리티움』이라고 부르다 形狀은 一種銀貨大、白銀色의 金屬이다 따라서그抽出에當하야는『폰드』에 對하야 五千五百弗(約二萬圓)이나 된다고 하니 놀나울만치 高價한것이다 그러나 그性質、利用範圍等에 이르러서 아는 程度가 明白하게되지안햇다

讀者社交室

▲詩人金碧岩氏住所를 아시는 량반이게시거든 讀者社交室로 通하야 下敎하여주시면 感謝感謝하겟나이다 이글을보시는碧岩氏自身이直接하여주서도조켓습니다、橫城甲山面梅日里 李光鎬

▲唐珠洞、都染洞이나或은光化門通、淸進洞近處에精潔한房한間을빌고자합니다사람은어느會社員男子이온바食事는外出해서하고다만寢事만할터이라고하옵는바親切하신분은通知해주시압 賃價는四圓乃至六圓까지드리고자하나이다 市內桂洞五二 SIS生

▲手風琴(피아노악코—듸온)新品 價格 七十圓 자리인데 同價의 風琴과 交換코저합니다、萬一風琴이 手風琴價보다 高하면 相當한 價格을 더드리고 交換코저합니다。左記住所로 通知하십시요 京城府外上往十里三○一 李順卿

▲左記몃가지를 뭇사오니가르켜주시오 一、大正六年六月二十四日(陰曆)生은 陽曆으로 何月何日이오며 또月建日辰은 무엇이며 또其日寅時의 干名은무엇이오리가 아시는분은 精確한것을 讀者欄으로 通知하시면 感謝하겟습니다 一、假令明治十三年鑄貨는 얼마價値가잇다는것을써노흔 册或은 印刷物을가진분이잇스면 高價로買入하겟사오니 本欄에 通知하시압 被愛邑吉野町二七 金在權

▲裵國炫君에게 裵君! 不得已本欄을通하야 告하는것이니 來回편지에는꼭이住所明記하시라 (牙山 崔應鎭)

▲京城府明治町一丁目四十一吉村理髮館에 二月七日正午頃學生한분이오서서 理髮을하시고 十圓을내여준뒤 거슬른돈九圓五十錢을밧지안코 가셧사오니 本人께서 바로차저오시기바라나이다 吉村理髮館主

▲親切하신 滿州寡人에게 두마듸 뭇켓습니다 大正三年 陰一月二十八日과 同四年 陰八月二十二日은 西曆一九一四年 몃月몃日에 該當합니까? 萬若 滿州寡人外라도 알으켜주시는분이 게시면 感謝하겟습니다 (花山蝶舞生)

▲樓下洞河生에게 河兄은去二月四日付問疑하신憲法民法民事訴訟法四卷을無料로드리겟습니다 書留送料와 住所를通知하시요今秋貴地에서施行케되거든應試하셔서合格하시기바라오 (讀影)

▲映畵에關한書籍이면 어떠한것이나買入코저하오니 讓渡하실意向이게신분은 下記住所로通知해주시오 市內太平通二丁目二三 李載玄

新刊紹介

▲朝鮮地方行政 二月號 京城府太平通二丁目四四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發行 振替京城八一五番 定價五十錢

▲母 二月號 東京市牛込區余丁町八三 日本母の會聯盟本部發行 定價十錢

▲新人間 二月第百號記念號 京城府慶雲洞八八 新人間社發行 振替京城一○一一八番 定價十錢

▲ひとのみち 二月號 大阪府中河內郡布施町 ひとのみち出版社發行 定價十錢

▲靑年 二月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 靑年雜誌社發行 振替京城一○三八番 定價十錢

▲民衆時報 第十六號 大阪市東成區東小橋南之町三丁目八五 民衆時報社發行 振替大阪五二八四○番 定價一ケ月二十錢(月三回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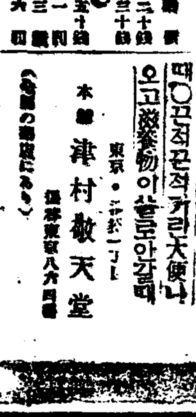
▲觀光 二月號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觀光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三十錢

▲金剛山 第六號 京城府鍾下洞七七○四 金剛山社發行 定價十錢

▲基督敎報 第四十一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基督敎報社發行 振替京城二一五九○番 定價五錢

來ル十五日特別封切 上映時間午前十一時開始
矢倉早に中央が諸彥に捧げる!新興特選名畵とPCL傑作映畵の倂立三本立名プロ週間!
特別興行なれど普通料金 大衆席 大人四十錢 學生三十錢 小人二十錢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原作 佐藤紅綠先生 監督 矢倉茂雄作品
絹の泥靴
竹久千恵子·千葉早智子·細川ちか子主演 丸山定夫·藤原鎌足·大川平八郎·英百合子·林千歲·助演
新興キネマ超特作時代劇 原作 加戶野五郞 監督 石田民三傑作 オール·サウンド
梧桐の唄
尾上菊五郞·森靜子主演 新見映郎·木村桐子助演
新興東京撮影所現代劇 原作 中野實 監督 曾根千晴 オール·トー
私のあなた
伏見信子·立松晃·主演 小宮一晃·若水照子·松千靜子助演
永樂町 電本三五一 中央館

人?狼?半獸人間の出現!! 二月十五日早已超特別大封切
ユ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名匠スチユア—トウオ—カ—氏大作品!
倫敎の人狼
헨리하—루氏主演 버—루리하부스氏助演
안개끼인倫敦의거리!멀리들니는 狼의우름소래…狼血에全身을洗蝕當한젊은科學者는滿月밤、人肉을求하여暗黑의거리를헤매이노나…!世紀英京을震駭한獸血人間의怪奇戰慄篇
ユ社特作全發聲連續大猛鬪 레이대이라—氏監督 바크 죤스氏主演
旋風地獄谷 全十五篇中最終解決篇
第十三篇…逆捲의激流 第十四篇…猛牛의殺到 第十五篇…征服의甘味
大都映畵社特作時代連續篇 白井戰太郞監督作品!
謎の泥人形 後篇 海江田讓二主演 月宮乙女 助演
西部의掟、猛火의決鬪、한도—의復讐、國境肉彈線、無籍非常線
電光三九五


胃腸 가타루의良藥 柏村博士創製 헤루푸 ヘルプ
東邦胃腸藥中가장精妙한配劑에依하야嶄然光輝잇는成績을나타내고二十數年來의聲價를保持한헤루푸는食傷、水傷、時候不調、冷寢冷腹等에起因된腸胃가다루의治療에效果가잇다
本舖 津村敬天堂 東京·日本橋

白金 ハクキンカイロ 懷爐
따뜻하여 봄과갓다
貴重한『白金懷爐』는 酷寒을이치게되야動作이 自由롭고兼하야醫療的 效果를나타내다 老弱은 勿論하고 가추어두라
用法簡單經濟的인바 一分錢으로서終日使用하게한다……冬期至寶!
定價 金一圓 金一圓半
總發賣元 大阪 矢澤商會
全鮮著名藥商에는다잇습니다

黃昏【10】

韓雪野 作 安夕影 畵

혼담(婚談)(五)

풍부한물질과 거긔따른 명예속에서 북돗거운 김재당의뇌(腦)은 머리에는 허잘것업는 가난뱅이의자식을 며누리될사람으로 인정할수업다는 낡은인습이 뿌리깁히 박혀잇다.

여기에 경재와 현옥의관계를 찬성하지안은 첫재의 리유가 잇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사회가 거진다. 그런것가티 아래는 눈도 거들떠 보지안는대신 늘 위만 처다보는 사람이다. 그의 눈에 비치는것은 돈과 권세를 가진 사람뿐이다 장안만호중에는 그러케 울러다보이는사람이 적지 안엇다 그런사람과는 무슨 관계든지 매저보고십헛다. 따라서 관계중에도 가장밀접한 사돈관계를 맷고십헛든것은 물론이다 경재를, 똑똑한아들이라고 생각는니만치 그안해를 처다보이는 가정에서 마저오고십헛고 또마저올수잇다고 생각한그는 내려다보이는 그러한가정에 대하여서는 아모 관심도 가지지안엇다. 처다 보이는가정의 애꾸눈은 뵈엿지만 내려다보이는 가정의 양귀비는 뵈이지안엇다. 그럼으로 려락한 안중서의집이 그의관심을 끌리치가 업섯다.

여기에 그들의사이를 찬성하지안은 둘재의 리유가 잇다.

그리고 문벌이나벼슬로 량반이되든 옛날과달러서 오늘은 돈으로라야 량반이된다는것이 밧구인세상에서 어든 그의 새로운인생관이다. 그럼으로 미덥성업는 금광쟁이—만에 하나도 성공하기어려운 루기업자를 현재 돈과지위와명예를 누리고잇는 그가 멸시할것은 당연한일이다.

여기에 그들의관계를 찬성하지안은 셋재의 리유가 잇다.

『얘, 사람은 제몸을 제가 조심해야 하는거다』

하고 김재당은 아들에게 주의를주고는 좀더 로골적으로

『오궁에 바람이든계집애들의 궁둥이나 쪼차다니면 사람의 자식을 엇다 쓰단말이냐』

하고 경계하엿다. 그리고 동경으로 떠날때 려비를 주며

『공부헐때는 공부나 착실히허지, 못된송아지 엉뎅이서 뿔이 난다구, 요새 젊은놈들은 부모가주는돈을 계집년 오궁에 처너코마니 되길 뭐가돼』

하고 돈줄때마다 하는버릇으로 벌럭 화를내엇다.

그리든 아버지가 오늘은 그와 숙히 결혼하기를 즐기고잇지안은가?—이런생각을하다가 그는 벽을 향하고 도라누으며 혼자 고소(苦笑)하엿다.

방은 깁헛다. 팔뚝시계의 때를긋는소리가 분명히 들여온다

그가 회창(悔悵)에서 생각든 세상과 지금 실지로 다다친세상은 아주 딴판이다 학교에서 나온후 아모한일도업시 지나온 요지음 한달사이의세월은 그의 눈압헤 일즉 생각해보지못한알수업는 세상을 펼처주엇다.

대체로 어찌될세상인지 어떠케해야 올흔인생인지 요새는 갈피를 잡을수가 업섯다.

그는 학교에잇슬동안에는 책도 만이보고 또 글도 때때로 써내엇다.

비평도 바닷고 칭찬도 물론 바닷다.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동무라는 부름을밧는 유쾌감도 늣겻고 파명을 걸머진 사람들의 말석(末席)에나마 일홈이끼인듯한 술기도 가지엇다 그때는 깃벗섯다. 무슨 훤—한빗갓 내다뵈는듯도 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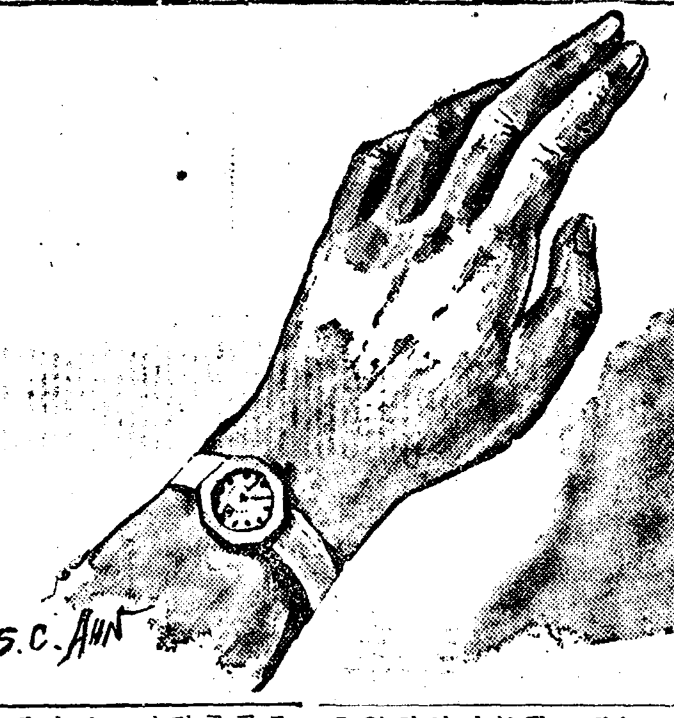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훨신 변하여젓다. 정신을 부채질하든소리도 어느새 나자지고 한씀는한이잇더라도 꽉꽉 사다 본는 책자들도 읽어보고 십흔 욕심을 끈는일이 헤질 적어젓다. 또 가령 읽는대야 거긔서 현실에 들어맞는 소리를 들어내기가 어렵고 따라서 무슨글하나를 써낼수가업섯다.

아피 갑갑해지는것갓햇다. 참말 그러케되고말것인가하고 생각하고잇노라면 돌연히 신문에 나타나는 예상치못하든 소문이 자긔를 핀잔주는것 갓기도하엿다. 자기가 생각하든것가튼 모든일이 어대로 자최를감추엇갓고 제가 기억하고잇는 사람의 일홈은 다시 어데를찾길이업슬것갓기도하엿다.

무엇이 무엇인지 도대체 갈피를 줄수가업다. 게다가 어처대 떼지기로 집일은 말못되게 기우러지고잇다. 밧게나가거나 집에 들어오거나 머리만 띵—할뿐이다.

현대 현옥은 때를마다는드시 오둑갭이가티 가르치잔을 다하고 제법 제르라고 호기조케 핥내고 다닌다.

그는 비록 정신을 차릴수업시지만 제가 올타고 생각는바를 그러케도 깨갑게 내여던지는사람을 미워할마한 당신은 가지고잇섯다. 또 그러한경험할만한인간을 제몸에대이고싶지안타는 깨끗한 한구석도 남겨가지고잇섯다.



映畵界散話

製作期를바라보며 (三)

一村生

『참푸린』은 영화제작을 하기전에 인간 사회 기타여러가지 생각하고서 영화에 착수하야 그의 영화에서 제작의 목적이 드러나고 그의 리상 그의 세계관 그의 인생관 그의 사회관 여러가지가 드러나서 여기서 이 영화에나타난 참푸린은 그어떠한 완전한 인격자로 또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술가다운 구석을 차저낼수잇스며 조금도 그의

작품에서

어느야욕이드러나보히지안는것이다. 바라건대 그들은 이 참푸린을 배왓스면 어떠한가한다 스탄, 벅, 루네, 크레엘가튼 사람들도 우리로서 배울 점이 만히 잇는 위대한 영화인이다. 영화감독은 영화의 노예가될지언정 흥행가 또는 갑싼 명예의 노예가 되지안어야할것이다 위대한 사람은 그의 미래가 더욱 위대한것을 본것이다.

또 제일 조선의 영화감독은 조선을 잘 아러야할것이다. 다른 외국영화를 숭배라도 모방한다 하는 궁여지책을 숭배라도 완전히그것을 조선의 영화로맨들지안으면안될것이다

리조(李朝)삼백년전 이야기를 영화화한데 잇서서 담배ㅅ대가 나오다든가 현대영화에 약그릇대신 사발을쓰고 요강에가래침뱃는광경을보히고 의례히 조선 농촌들이면 배경을 처참하게만 보힌다는것등, 그것이 조선의영화는아니며 사실주의(寫實主義)의 영화도아니며 도리혀 우리로서 불쾌하고 남보기에

우리를욕

되게하는것에 지나지안는다 더구나요새 조선의 토—키—를 본다면 조선의말 『세리후』조선의 음악을 모르고 제작하는감독을보다 이것은 그감독의 상식부족이며 남의 힘을 힘입을 때에힘입기 실혀하는 자긔주의 즉갈간리긔주의의 소산이라 아니할수업다 먼저 토—키—를생각하기전에 조선의 토—키—를 제작하기전에 거기에대한 연구를 쌋지안으면 허사가될것이다

海外映畵消息

『佛蘭西篇』 續

『幸福한冒險』(시네덕스映畵) 안드레, 오벨제氏의 시나리오를 쇼제스코氏의 監督으로 製作한것인데 飛行機의 墮落으로 말미아마 거긔타는 일곱사람이 大森林中에서 原始的인 共同生活을 하지 안치 못하야다는 스토리의 映畵이다. 라니아·페르르氏 라다르氏出演

『非常警報』(시그마作品) 크리스찬 가크氏의監督으로된 映畵이데잔 뮤라氏 조세트, 데멘出演

『狂風』(S·P·A·C作品) 라오볼드, 고메스氏의 原作을 피에르, 비온氏가 映畵化한것인데 北아푸리카를 背景으로하고 거긔서 일어나는 種族間과 家庭內의 드라마가 描寫되야 잇다 알코베드氏出演

『안드날下』(O·C·G·F作品) 一躍 猝富가 되사나히는 結局은 사랑이 가장큰幸福이라는 것을 깨닷게되는 喜劇으로 레몬 코르디氏主演 原作은장, 데르몽과 루네, 弗소르爾氏

『大카라반』(아르만디필름)아푸리카의 아가디스로부터 떼마에 年年 소금을 보내기爲하야 出發하는 카라반을 撮影한 實寫映畵로서 잔, 티루氏의 시나리오를 自然劇

『悲神의戲弄』(獨우파作品佛語版) 라우르, 프로칸氏의 指揮下에 라인홀드, 슈세르氏가 監督한것

罪와罰映畵化

監督 요셉, 폰, 스탄빡
主演 性格俳優피—터, 로—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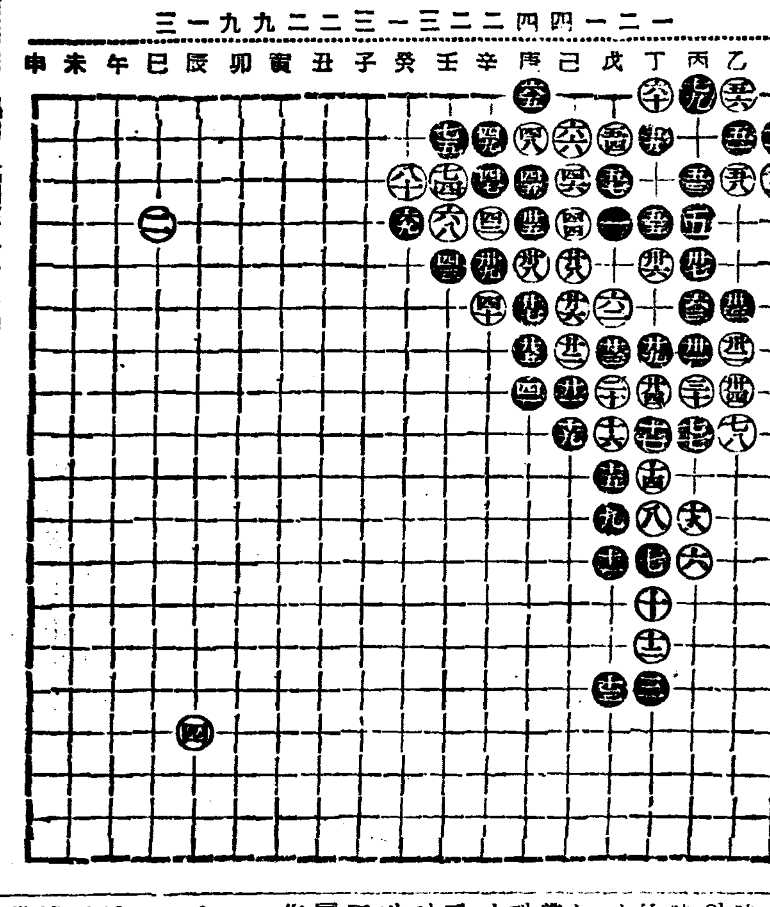
西班牙狂想曲의 製作을 最後로서 요셉, 폰, 스탄빡은 파라마운트를 떠나 컬럼비아로 옴겨 온뒤 맨첫번 罪와罰의 製作을 내노핫다. 罪와罰은 곳러시아의 大文豪 할스토엡스키氏의原作으로서 이미大衆化된 作品이라 그點으로도 世間의 注目한興味를 이리키고 잇스리라고 말한다. 性格俳優 페—라, 로—레氏의 主演아래 에드와드 아놀드라든지 마리안, 마—슈라든지 라라, 비렐이라든지 모다 助演으로 나온다. 페—라, 로—레는 아메리카로 건너온後 처음으로 힘드린演技라고 한다. 그런데 그內容은 요前者 英國서 改作한 探偵劇 罪와罰에 類似한점을 보이고 잇는모양이다

寫眞은 그中의 한場面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5—

白 權秉郁
黑 張基歡

●六五	○六六	●六七	○六八	●六九	○七〇	●七一	○七二	●七三	○七四	●七五	○七六	●七七	○七八	●七九	○八〇
庚의一	己의二	丙의一	壬의四	癸의四	丙의二	甲의二	甲의三	丙의一	壬의三	壬의二	丙의二	丙의九	乙의九	丙의一	癸의三



◆碁極文談

黑이 戊의三으로 斷突한을 白이 乙의三으로 斷하야 劫을 發生한은 明快한 手腕으로 讚揚하노라 黑이 劫數 不足으로 東角連鎖이 危在時刻은 參差錯으로 捨棄 全面은 豈非當局者之大悔乎아 槪論碁之布勢가 上應星宿 羅列하야 分羣하도다 一點 差錯으로 理之常也어늘 團結一隅는 恐失體裁ㅣ르까하노라

外國映畵界雜信

시네마大賞은 英雄的祭典

藝術及工業獎勵協會가 佛蘭西映畵協會와 提携해서 佛文部省의 後援下에 各年度의 最優秀映畵를 選拔하는것은 昨年부터 始作되여 一九三四年度의『시네마大賞』은『힘든處女地』가 獲得하엿는데 다시 一九三五年度의 同賞은 絕對多數로서『작크·페—데』의新作『英雄的祭典』이獲得하기로되엿다. 따라서 參考삼아그때의 投票率을보면『英雄的祭典』이 二十九票이고『마르셀·레르비에』의 作品『戰爭의前夜』가十三票,『피에르·슈나르』의『罪와罰』이 五票,『피에르·비용』作品『第二國』이 二票라고한다。

『에릿히·포머—』 『코르다』와作品製作

『에릿히·포머—』는 『폭스』社를 爲해서 『리리옴』 『空中을 나는 音樂』等을 製作한 뒤에 一時는 消息을 끈코잇더니마는 今番에 英國의 『론돈필림』社를 爲해서 四個의 作品을 提供하게되는것이 判導되엿다. 그리고 이四個의 作品은모다 『알렉산더·코르다』의 總指揮밋헤서 製作되리라고한다

佛映畵의耆宿 『앙리·크로—스逝去』

佛蘭西映畵의 草創時代부터『레미제라블』『九十三年』『코르시카의兄弟』『貧者의帝王』에 主演하여서 그名演技가 謳歌되고 또한 自己의 主演監督인 名作『앙리크假面』을 내여 有名해진 『앙리크로—스』가 昨年十二月에 逝去하엿다 『크로—스』는 『로—키—』時代가되여서도 몃개의 映畵에 出演하엿다『레미제라블』의 『로—키』版에『미리엘』僧正으로 扮裝한것이 곳한例이다. 그리고 夫人도 俳優로서 『살르로트, 바르비에, 크로—스』라는일홈으로 매양 그夫君과 共演을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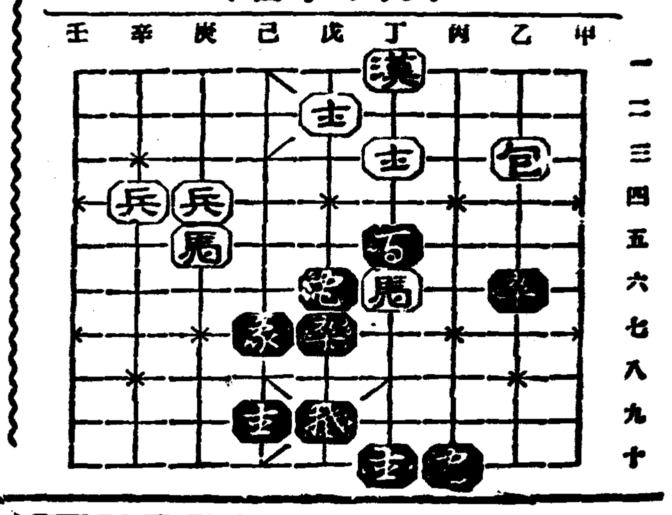
『나기—』孃의結婚

『우파』社의 『스타—』로서 獨逸唯一의 人氣女優인『게—테, 폰、나기—』孃은 元來『항가』國籍이 잇섯는때문에 『나치스』獨逸에서는 隱退이 잇겟슴으로 最近은 佛蘭西映畵에 出演하고 잇섯는데 昨年末 巴里에서『작크 팡드니—』라는 佛蘭西人과結婚하고 따라서 佛蘭西에 國籍을 넘게되엿슴으로 今後는 佛蘭西에 永住하기로 決定하엿다고한다. 그러니까 女優缺乏의 獨逸에서는多少의 打擊이 잇스리라고한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手局譜 (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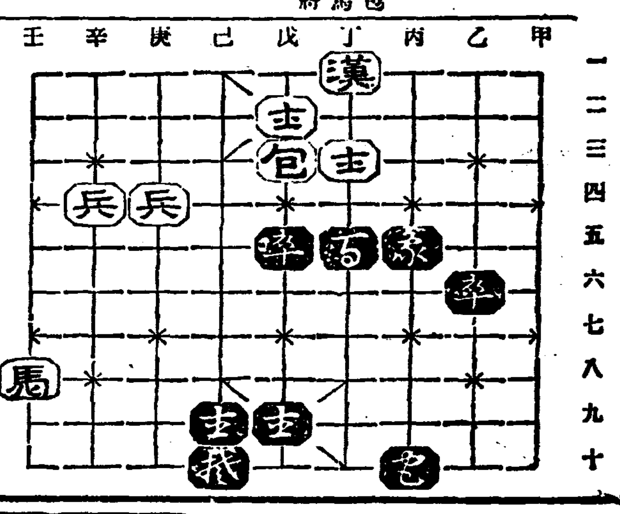
李在鳳 對 金漢榮

◀第十六手圖▶



◀第十七手圖▶

乙五包—戊五 / 戊九卒—己十 / 庚五馬—戊六打包 / 戊七卒—戊六打馬 / 丁六馬—戊八呼將 / 丁十士—戊九 / 戊八馬—庚九 / 己七卒—丙五 / 庚九馬—壬六 / 戊六卒—戊五



라듸오

十五日(土曜)

◇午後六時 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佛蘭西』(二) 崔福鉉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國語) 日川孝雄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諷刺와유모어 李晶燮
◇同八時 愁心歌外 一、愁心歌 二、엿금愁心歌 三、진—아리 四、타령 五、간지타령 朴明花
◇午後八時二〇分 (東)管絃樂—東京音樂學校演奏會(日比谷公會堂)으로부터中繼—交響曲第九電D長調…브루크너作曲 第一樂章 莊嚴하게(神秘하게) 第二樂章 스케르쏘(活潑하고자지게) 東京音樂學校 管絃樂部 指揮 크라우스프링스하임
◇同九時 映畵이야기 朴應冕

第一放送

◇午後六時 이야기와讃佛歌
◇同六時二五分 (東)農家의時間
◇同七時 講演
◇同八時二〇分 (東)管絃樂

十六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案內…(滿洲로부터)—哈爾賓— 一、아이다(歌劇)中의行進曲……뻬르듸作曲 二、루스랑과류드미라(歌劇)中의序曲…글링카作曲 三、월쓰『黃金의비』……슈라르우스作曲 四、混成曲『코시안』……크레—너作曲 MTFY상흥오케스트라 指揮 세르게·슈와이코프스키
◇同一時二〇分 레코—드音樂
◇同六時 하모니카合奏……一、戰勝旗下에서…뿔론作曲 二、巨人의무리…크림손作曲 三、圓舞曲『쿠쿠월스』…죠나슨作曲 四、砂漠을가는隊商…자메닉作曲 五、黃昏…李東項作曲 알파하모니카밴드 指揮 金生峰
◇同六時二〇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釋迦入寂에對하야』 朴允進
◇同七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덕우에草堂 二、唱劇調박타령 金東岡 鼓手 丁元燮
◇同八時 獨唱과피아노獨奏 一、獨唱〃눈이잇서도 보지못함〃…헨델作曲 二、피아노獨奏〃蘇格蘭의사랑가〃…바론作曲 三、獨唱〃그時節이지나가고〃…스픽스太曲 四、피아노獨奏〃前奏曲〃……쇼팡作曲 五、獨唱〃福바든者오라〃…스콧트作曲 獨唱 韓福德 피아노獨奏와伴奏 金福實
◇同八時三〇分 雜山歌外 一、遊山歌 二、齡遊歌 三、달거리 四、경사거리 鄭牧丹 李竹葉
◇同九時 連續野談 〃勿尾杖〃(一) 申鼎言
◇午後一時三〇分 鮮滿交換放送 滿洲로부터(新京) 滿洲青年劇團 『大組』新民京劇社演員

第一放送

◇午後〇時五〇分 (哈) 室內樂
◇同二時二〇分 (大) 립비實況
◇同六時 (大) 連鎖浪曲劇
◇同七時三〇分 (東) 歌謠曲
◇同七時五〇分 (東) 謠曲
◇同八時二五分 (大) 寄席中繼 一、漫才 二、時事小唄 三、落語 四、漫才

十五日(月曜)

◇午後〇時〇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令 三、山念佛 四、青春歌 五、방아타령 六、양산도 七、노래가락 八、잡부타령 李琴 池龍九 短簫 崔壽成 細笛 高載德
◇同三時一五分 家庭時間『主婦外科學知識』 孫貞順
◇同六時 童話 秦金星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小賣商問題에對하야』 朱泰道
◇同七時三〇分 勤儉貯蓄週間 (三)中樞院參議 韓圭復
◇同八時 歌詞 一、將進酒 二、白鷗詞 金花香 金蕉紅 大岑 金永根
◇同八時三〇分 (東) 獨唱과管絃樂 獨唱 德山隆 管絃樂新交響樂團 指揮 니코라이·시펠푸랏트
◇同九時 連續野談 〃勿尾杖〃(二) 申鼎言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東)家庭將座
◇同一一時 (東) 小學生時間
◇午後〇時十五分 (名) 俚謠
◇同二時 (東) 젊은婦人께
◇同三時一〇分 (東) 敎師時間
◇同六時 (仙) 어린이時間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八時 (東) 常磐津
◇九時 (東) 漫才

曆

二月十六日(日) 正月大(甲四日) 戊辰·木·■·■
●祭祀祝文에 官名
●立春五日(舊十二日)
●雨水二十日(舊廿八日)

クラブ美身クリーム

구라부 미신 크림

大懸賞

二百萬人이 굉장한大景品을탄다

無抽籤優待景品進呈하는外에도抽籤으로

特等 貳百名
大楠公置時計 (黑理石付) 一個
新錦紗訪問服 一着
晴雨兼用コート 一着
八端客用座蒲團 一組
洋風書棚 一個
流行小型寫眞機 一個
(上記中希望하는것一品)

一等 參百名
流行型パラソル 一本
新樣式ショール 一枚
村山大島紬 一反
ボストンバッグ 一個
折疊式乳母車 一臺
(上記の中御希望の品一品)

二等 五百名 プラトン萬年筆 一本
三等 四千名 クラブ乳液 一個
又はプラトン二色シャープ鉛筆 一本
四等 一萬五千名 クラブ美身クリーム(中) 一個
五等 參萬名 クラブ白粉(中) 一個
參加賞 クラブ石鹼 一個

빠지안코다타는 優待景品

이懸賞의포스타—가걸린販賣店으로クラブ美身クリーム又는クラブ洗白クリーム、クラブコールドクリーム을買上하시는분은二百萬人까지左의優待景品中에어떤것이고하나를當場에無抽籤進呈。

家庭用 美粧料 プラターム(試用品) 一個
クラブ美の素石鹼(試用品) 一個
クラブ洗粉(試用品) 一個

굉장한大人氣 熱望에依하야 締切延期 二月末日까지

懸賞課題

化粧品研究會에서 著名한女優入江たか子孃、川崎弘子孃、■■■子孃에게

『당신네의 肌膚는 퍽곱습니다、大體어떠한크림을쓰십니까?』

하고물어보니、三人의 스타는 한결가치

入江 『우리들이 使用하는것은 거츠러지고、걸고하는것을 防止하고、살결을곱게하며、
川崎 『호르몬을含有하야 神通하게肌膚를젊게하며、
飯塚 『白粉下로쓰면、白粉이 썩잘오르고、化粧이 삭지아니하는、
三人 『クラブ〇〇クリーム』입니다』 라고答하엿습니다。

무슨クリーム일가요?

(〇〇잇는곳에 適當한文字를 너흐면 正解가됩니다)

回答方法

クラブ美身クリーム (又는クラブコールドクリーム クラブ洗白クリーム) 의外函의裏面에 (1クラブ〇〇クリーム 2住所及姓名) 을알기쉽게記入하야、近處의クラブ化粧品販賣店에가저다주십시오(同答은、前記(1)(2)의答案을明記한한後一人이몇장이라도應募할수잇습니다)또、他用紙라든지 販賣店에서回答을모하서本舖로보내므로手者와郵稅가필요합니다。直接本舖로送付하는境遇에는、十五그람(約四匁)마다封筒에三錢의比로切手를붓치십시오。(郵稅不足한것은接受할수업습니다)

보낼데
大阪市浪速區水崎町 又는 東京市京橋區鍛冶橋際
中山太陽堂 クラブ美身クリーム懸賞係
締切 昭和十一年二月末日

自作農激減反面에 小作農二萬戶激增

過去十四年間에 거러나려온 黃海農家의 消長面貌

【海州】황해도당국에서는 총독부방침에의하야 현하몰락과정을 것고잇는 농촌을 구출코저 농촌진흥(農村振興)운동의 하나로서 해마다 적지안흔 자작농(自作農)을 창정하는등 대활동중인데 이를비웃는듯이 자작농가는 감소되고 소작농가(小作農家)만 격증하는비참한현상을 뵈이고잇는바 이것은 과거 십사년동안 거러나온 농어황해의변천과정이 증명하고잇다 대정십년 이십이만륙천팔백사십호이든것이 소화구년까지의 십사년동안에 팔천오백오십육호가 증가되여 이십삼만오천삼백구십륙호에 달하야 농산액도 엄청난 증가를 뵈여주고잇스나 황해도농무과통계(農務課統計)에나타난 농가현상을보면 자작농가(自作農家)와 밋자작겸 소작농가(自作兼小作農家)는 현저히 감소하는 반면에 소작농가(小作農家)가 극히급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참한 현상을 뵈이고잇는 그통계를보면다음과갓다.

年代	總農家	自作	自作兼小作	小作
大正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十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이상의 통계가 보이는바와가티 십개년동안에 전농가호수의 오할이상을 차지하고잇든 자작농과 밋자작겸소작농의 지반은 급격히 몰락되여 자작농은 천칠백사십팔호 자작겸소작농가의 합계 삼만이천칠백 칠십오호가 감소된반면에 소작농가는 삼만칠천사백륙십팔호의 엄청난 격증을 뵈이고 잇다。

이현상의 원인으로서는 외래자본(資本)의 침입과 토지겸병의 폐해등을 들수잇다。

本報支局後援의 映畫와音樂의밤

【統營】통영 문우당(文友堂)주최 본보통영지국 후원하에 오는이십일 십칠일 오후 칠시부터 봉래좌에서 영화와음악의 밤을 개최한다는바 상영할영화는 국제대활극「청년의 사나이」와 인정비극「매맛는사나이」며 조선영화 대란투극「봉망우」이며 음악은 통영고성지방 음악가의 총출동으로 더욱 대판동아학교에서 오랜동안 독창을 전공으로 연구하야온 손학균(孫學均)씨의 특별출연이잇슬터인데 금번영화와 음악의밤에 수입되는 것은 경영난에빠진 사립동부유치원에 긔부하리라는바 일반시민은 만흔 임장이잇기를바란다고한다

府、商議員聯合 群山發展懇談

【群山】군산의 일층발전을위하야 군산부회의원(群山府會議員)은 지난 십사일 오후네시 군산부청루상에서 군산의 발전진흥책에대하야 련합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산에서 다년간숙안으로되여잇는 좌기오대 의안을 란상간담한후 동회지상십분에 산회한바 그중 상업학교(商校)의 입회를 문제에잇서서는 반반으로할것을 마치의지가결하얏다한다

◇討議事項

一、第二期事業에關한件

二、[illegible]에關한件

三、工場誘致에關한件

四、商業學校設立에關한件

五、沿岸貿易及港灣에關한件

本社教材를使用 無產夜學의蔚興

◇…泰川郡에서만兩個所

【泰川】평북태천군서성면 송곡동(西城面松谷洞)에서는 당지청년회주최로 지난일월부터 본사교재를 사용하야 무산야학을개설하고 남녀아동의 문맹퇴치에 로력중인데 생도는 남녀합사십여명으로 동리유지 리동희(李東熙) 류홍조(柳弘祚)량인이 무료로 교수하는데 성적이 매우 양호하다고한다

【泰川】평북태천군서성면 산성동(西城面山城洞)변선학(邊善鶴)씨와 리긔현(李基賢)량씨는 동리에서 배움에 굼주리는 무산아동을위하야 지난십이월부터 변선학씨자택에서 남녀사십여명을 모아노코 본사에서 배부하는 교재를 사용하야 밤을 새워가면서 가가거겨와 산술(算術)을 가르키는 성적이 매우 양호하다고한다

慶賀할文字普及熱 安州高普寄附金

【安州】머지안아 개교될 안주고보에 요지음에도 긔부금이답지한다는데 최근긔부자와 씨명은 다음과갓다

成滋一 二百圓 安基鳳 一千五百圓 金惠根 二百圓 尹範重 百圓 金鎮弼 二十圓 金宏變 二十圓

百餘名의連署로 道路改修等陳情 群山東濱町住民들이

【群山】군산부동빈정(東濱町)일대 이상정호주민 백십여명은 지난십일일 군산부에다가 지구(地區)개정 로면(路面)정리 배수구(排水溝)등 시설을 소화십일년도 예산에실시를 하도록하야달라고 련서진정을 하얏다는바 부당국에서도 가급적시설을 하도록하겟다고 언명하얏다한다

德川에서도 婦人夜學

【德川】"아는것이힘! 배워야산다"!이표어는 본보에 항상긔재되는바이어니와 금월오일밤칠시부터 덕천부인회주최 덕천공립보통학교의 열렬한 후원아래 부인야학이 개강된바 변령으로 사십세이상의 부녀와 가빈으로 미취학한 십세이상 녀아의 입학지원이 백이십여명이며 더욱이 놀라운것은 아이아비가 유아를다리고와서 아이어머니의 휴학시간을 기다려유아에게 젓을먹여가지고 가는등은 전가족적으로 열성인것을 징명하고도 남음이 잇다고한다

十年繼續事業으로 本格的火田整理

山麓의適農地는耕作容認 平南道山林課서計畫

【平壤】평안남도내 민유화전(民有火田)의 총면적은 륙만정보로 경작화전호수는 이만호에 달하는데 도산림과에서는 화전의 신개간을 절대금지하고 도현재 경작중의 화전호의 급경사지는 임종 황폐케하여 밤성을 일으키는바도 적지안치만은 화전민의 생활상으로보아 급경사지를 제외한 현재의 경작을 용인하여도 급속히 황폐케할리는 업슬터이라 장래의 숙전(熟田)으로 화할장소도 불소하므로 십년도부터 보조를 주어 간의한 토방공사(土防工事)를실시하여 토사와 비료의 류출을 방지하고 시공지와 산록부의화전에는 퇴비(堆肥)를 장려하여 점차 산상에서 산록으로집중을 식히는한편 농작물의 증수를 도모하며 따라서 토지에 호심을 환긔케 하기로되여 명년도부터 십개년 계획으로 본격적화전의정리에 진력하기로되엿다한다

自働車殺人事件 檢事現場檢證

【淳昌】지난일월이십이일 전북순창군 적성면하(淳昌郡赤城面)에서 순창남원간의 승합자동차운전수 박항호(朴恒浩)에대한 소아류상사건은 그후 사건일체를 남원검사분국으로 송치한후 이래계속취조하여오든바 지난 이월십사일 검사국으로부터 령목검사(鈴木檢事)가 래순하여 림사법주임(林司法主任)과가리 현장을 검증한후 동일오후차에남원으로도라갓다고한다.

百四十名募集에 應募者五百突破

固城公普校의入學難

【固城】경남고성군에잇는 고성공립보통학교(固城公立普通學校)는 현재 십이학급제도로 재학생팔백이십명을 수용하고잇는중 금번도입학시긔를 압두고 지원자가 매일수백에달하야 발서지원서(志願書)제출이 오백여매에 달하여 모집생일백사십명의 약 오분지사에달한현상인데 앞으로도 약백명이상의 지원자가잇슬 현상임으로 입학아동의 부형은 크게우려중이며 학교당국에서도 선발(選拔)문제에 대하야 큰번민을하고잇다고한다

今年度入學生엔 戶籍抄本不要 群山公普校에서

【群山】군산공보교에서도 새학긔가 얼마남지 아니하얏슴으로 금번에도 오는 이십일부터 래월이십일까지 입학지원서를 바드리라는바 례년에는 입학원자의 호적초본(戶籍抄本)을 반드시 입학원서에첨부하던것을 금년에는 입학원자의 편의를 보기위하야 호적초본첨부하는것을 폐지하기로하고 다만 호적원본과 대조만으로 하기로 하얏다하며 또 종전에는 입학원서를 학교에서 교부하던것을 그여 부청호적계에서 교부한다고한다 그원의도라갓다고한다

基本金積立問題로 沙里院商校流產?

期成會도當分斷念

【沙里院】사리원상교(商校)설립예산으로 도당국에서 이십만원을게상하야 지난삼일 상교긔성회에 그부담금액의 유무를 요구하야 동긔성회에서는 룡천주야하고 활동한결과 십만원내외의 금액을 거출할 예상이보이여 도당국과 구체적으로 량해를 엇고저 긔성위원이 상도(上道)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도당국에서는 십만원도 예산편성긔입으로 현재 이십만원을 적립하지안흐면 도저히 금번도는 실현할수업다하야 상도하엿든위원들은 다시도라와 긔성위원회를열고 협의한바 단긔일내에는 이십만원이란 거액의현금을 거출할수 업다는 의견에 일치하야 결국 사리원의 상교설립은 금번도 안에는 실현 하기어렵다고 할수잇는바 금후 사리원에 상교설립을 열원하는 지방의 실권잇는 독지가의열성잇는 특지가 잇서야할것은 물론이지만 그보다도 도당국의 량해가잇서야 이십만원의 거액예산을 전부 사리원주민에게 부담하게하는안을 다시고려하여야 되리라고 일반은 말하고잇다한다

益山郡下에大火 損害五百餘圓

【裡里】지난십사일오후네시경에 전북익산군금마면동고도리(全北益山郡金馬面東古都里)에서 음식점을 영업하는김도선(金道善)의 집에서 불이나자 때마침 닥치는 서남풍에 불꼿은더욱 맹렬하주 당지소방수의 결사적로력으로밤 열한시경에야 겨우진화되엿는데 전소(全燒)된것만 반소다섯간과 보통학교창고까지 다타버렷는바 원인은 전긔김도선의집에서 재(灰)를잘못버려서 불이난것이며 손해는 약오백여원이라고한다

佛教協會主催 佛教大講演會

【大邱】경북불교협회(慶北佛教協會)주최 본보대구지국후원하에 오는 십륙일 오후칠시부터 대구공회당에서 경북최초의 불교대강연회를 개최하리라는바 연사급 연제는 다음과 갓다 하며 경북불교계에 명성이 자자한 강유문(姜裕文)선생외 두분을 초청하야 개최하는것으로 당일 공회당은 대만원을 일우리라고 예상된다하며 입장은 무료공개한다고 한다。

◇演題及演士

佛教의槪觀 姜裕文氏

人間이찻는人間 鄭斗石氏

佛教는 人生教 李會光氏

沿岸普通學校에서 水產讀本을講說

咸南道의첫試驗

【咸興】함남도학무과에서는 연안보통학교의 수산직업과 교육의철저를긔하야 수산독본(水產讀本)을 편찬하여 배부하는동시에 오는 사월신학긔부터 교수하게 하엿다는데 교과서의 내용을보면 사학년에는 수산물의 명칭 어로 법(法)으로 오학년에는 어구어망의가공제조 륙학년에는 수산흥업의사상을 함양할재료를배렬하고잇는데 조선에서는최초의 시행이니만치크게긔대된다고한다

訓導毆打事件 十餘名또釋放

【元山】덕원모공보교훈도구타사건으로 지난칠일 덕원군적전면당우리(德源郡赤田面堂隅里)에서 피검되엿든 청소년사십명중 그동안수차에 긍하야 이십여명을석방하얏다함은 긔보하얏거니와 지난십사일에는 강민진(康民鎭)외십여명의석방이 또잇섯다 남어지박용희(朴容熙)박길병(朴吉秉)량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근일중 송국하리라는데 일시사십명의청소년을 대량검거하얏든이사건도 전긔량명의송국으로 단락을 짓게되엿다고한다

遝至하는同情 元山孤兒院에

【元山】사고무친한 고아를 수용하고 사회유지로부터 보내주는 뜨거운동정금으로 근근히 유지해가는 원산고아원에 요지음 다음과가티 동정금품의 긔증이 잇섯다고한다

金二十圓 高原公普生 金恩德 衣服三着 京城李淑娘 金十圓 元山間組出張所 金三圓 元山中央教會

小兒一名溺死

【彦陽】지난십이일오후 팔시경에 경남울산군언양면 평리 김락경(金洛經)씨의 오남지입(知立)(三)은 자긔집에서 약일키로밧가량되는 산밋우물에서 빠저죽은 사체를 발견하엿는데 그아이는 그모친 되는 변성녀(卞姓女)가 아이를 잘들여노코 그상초의 초상(初喪)에간여가에 잠든아이가잠 어나서 어머니를 차즈다가 그와가튼 참사를 한것이라한다

大邱
佛教大講演會
◇時日 二月十六日午後七時
◇場所 公會堂
◇主催 慶北佛教協會
◇後援 朝鮮日報大邱支局

異次頓의死

李光洙 作 金奎澤 畫 【97】

알몸은 공연히 입을 열엇다고 마음에 후회를 하면서、

「요새 궐내에 요괴로운」

하고 또 말이 끈허진다。

「무엇? 요괴로운?」

하고 상감의 옥성은 날카로운 비들 띄다。

「황송하오。죽을 죄로 황송하오。」

하고 알몸은 더욱 엎디면서、

「그러하오나 충신은 바른 말슴을 아뢰오。만번죽사와도 바른 말슴을 아뢰오。요새 궐내에 요괴로운 인물이 출입한다하와 민심이 자못 흉흉하오。열번 백번 죽사와도 바로 아뢰오리다。요괴로운 ―― 대단히 요괴로운 중이 ―― 이차돈이 ―― 그리고 고구려 사내중과 계집중이 날마다 궐내에 출입하야 상감의 총명을 가리옵는다」

하고는 알몸은 이때에 물둑 묘한 생각을 어든것을 깃버하야、

「멧나라 임금의 딸별님도 상관하와 계집이 모도 넷이나되오며 그 밧에도 또 멧 계집이나 잇는지 모르는 요망한사내오니 그런 놈을 궐내에 들이시와 만일에 평양공주마마께 무슨 일이 잇기나 하더라도나라에 그런 상서롭지못한 변괴가 잇사오리까。하물며 이차돈이 고구려 장수 메주한가의 추김을 밧고 나라님과 나라를 해치러 들어온것이라 하옵거늘 그런 궁흉극악한놈을 궐내에 출입케하시와 상감마마의 지척에 드나들게 하시는것을 뵈옵고 신자의 도리에 잠잣고 잇슬것입사와 공목이손과 이몸 알몸은 죽기를 무릅스고 바른 말슴을 아뢰라고 상감마마압헤 엎더린 것이니 이두놈을 죽이시던가、저요괴로운 이차돈의 무리를내어주시와 만백성이보는 곳에서 목을 버혀 민심을 편안케 하

「그 요괴로운 무리가 무엇하게 상감마마 옥체를 엿본다 하오。원래 이차돈으로 말슴하오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성은이 망극하와 죽을 죄를 사하시와 고구려사닉금의 목을 버혀오라신 어명을 밧자와 가지고 고구려에 갓거든 도로혀 적의 대장 메주한가의 수족이 되어서 그 딸 번들애기와 정을 통하옵고、듯사오녹 고구려의 돈과 벼슬을 바드라고 상감마마를 죽이삽고 우리나라에 누구누구하는 큰 인물들을 죽이량으로 머리를 깍고 중이 되어서 들어온것이오니 이것은 이차돈이가 적장 메주한가의 아들 고주를 중으로 변복을 식혀가지고 다리고온것을 보아도 알것이옵고、또 메주한가의 딸 번들아기를 여승으로 변복을 시켜가지고 온것을 보아도 알것이아니오니까。또 듯사오녹 이차돈은 평양에서 메주장사하는 거울보고라는 놈의 딸을 다리고 살다가 메주한가의 딸 번들아기에 혹하와 거울보고의 딸을 돌아보지아니함으로 거울보고의 딸 바달은 오히려 절개를 변치아니하고 올며 서라벌을 차자와서 이차돈의 한에비 한마로에게 하소하와 바달은 한마로의 집에서 지금까지 울고잇다 하오。그러하옵거늘 이차돈은 이손 이마로의 딸 달님과、달님의 시비요 예전 우

시옵소서。이 무리의 충성된마음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하고 알몸은 이마엣땀을 씻는다。

상감은 눈을감으시고 알몸의 말을 다 들으시더니 눈을뜨시와 공목을 보시며、

「공목이손도 그말을 하려고왓는가」

하신다。

공목은 이 몸이시는 말슴에 어떠케 대답할바를 몰라 머뭇머뭇하다가、

「아니오、상감마마。이몸은 이차돈이 그러케 궁흉극악한 사람으로는 알지아니하오。그 분도라는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오나 아까 편전에서 나와 전전으로 걸어가는것을 보오니 그 단아하고 엄숙함이 마음에 구름 해친 마음을 품은것 가지는 아니하오」

하고 아로인다。

알몸은 공목의 옆구리를 꼬집는다。두번이나 꼬집고 알몸은、

「황송하오나 이몸이 한마디 더 아뢰오。원래 악인은거동로는 선인모양을 꾸미는것이옵、」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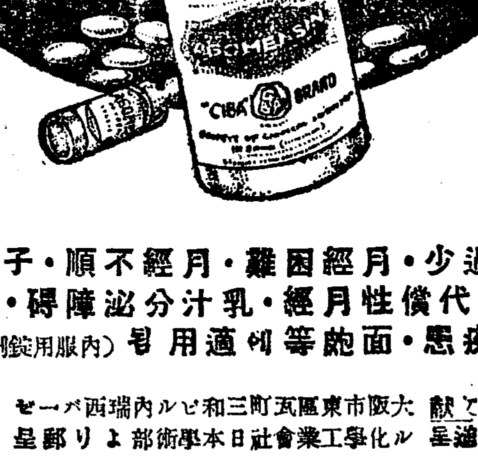
상감은、

「악인은 입으로 더욱 선인의양을 꾸미는것이 아닌가」

하고 입설을 푸르르 떠신다。

たん咳喘息에 ベルマン (담 해 천 식 베 루 만)
中毒性업는 新鎮咳劑

기침을막고、담을 떼고發作을緩和하 고心臟을强케中毒 性업시安全=良効
壹圓 五十錢 二圓
全國藥店에잇合

月經催進劑 アゴメンシン (아 고 멘 신)

月經過少・月經困難・月經不順・子宮發育 不全・代償性月經・乳汁分泌障碍・月經性 皮膚疾患・面皰等에 適用됨 (內服用錠劑及注射液)
文獻 進呈 大阪市東區瓦町三丁目 和ビル內 瑞西バーゼル 化學工業會社 日本學術部 より郵呈
日本總代理店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持約店 小西新兵衛 鳥居 三共
10—28

强力 男性ホルモン アンドロスチン

질거운飯酒를 로못마시다가…… 淋疾 ネオヂリン (네 오 지 린) 먹으면도마시고집흐다 各有名藥店에잇습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頭痛에 ノーシン (노 ― 신) 效果는期待以上!더구나 胃腸이안상하는理想的頭痛藥

二月十五日부터
春服豫約開始
一着御豫約에
A……30.00
B……35.00
C……40.00
D……45.00
特……50.00
今春專門以上卒業生祝賀 화이바―로된堅固美麗 한洋服箱進呈
京城・鍾路 和信

最高級調味料
味の素 宣傳賣出
二月十五日부터 二十四日까지
食料品類金五十錢買上에 試用瓶無料進呈

二月十三日부터 正午十二時부터 六時까지 繼續七時始映
階上三十錢均一 階下二十錢均一
文藝界에―고―渡去하야 實로五十年 最大作!映畫化한故鄉의文藝篇
廿世紀映畫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樂園 쌀스프―톤 포레드릭쿠마―치主演
◇嘆無情
이미小說로써天下人士에게紹介된 이作品을全發聲으로映畫化한雄壯大篇의永久不滅의藝術品을 提供한一大巨篇
松竹키네마社超特作 時代劇사운드版 ◇殿樣と隱密
明朗松竹映畫의「시리―스」映畫는 奇想天外의爆笑와넌센스를가추고 「편」諸賢을 笑殺시키는好評嘖嘖한 名篇
漫畫短篇紹介
仁寺洞 電光三六 朝鮮劇場

二月十四日부터 三日間大公開 毎日三回興行 夜間은 七時始映
大衆料金 階上席十五錢 階下席十錢均一
콜럼비아社全發聲日本版 호랑크카푸라監督 그날밤의眞心
JO太秦發聲映畫社超特作品 伊奈精一監督 戀の鋪道 伏見信子、谷幹一主演
택사스의怪物
鍾路四丁目 電光二五四番 第一劇場

二月十三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半 午後二時半 六時卅分
廿世紀폭스超大作映畫 詩聖딴테地獄篇의映畫化 딴테地獄篇 스펜사 트레시 그레아 트레버 主演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畫 죠지 회잇氏及其一黨出演 스캔달卅五年
◆日活特作映畫 丹下左膳 第二篇 林不忘 原作 大河內傳次郞
全鮮第一 映畫殿堂 電光二五八 團成社

經濟解說 "增稅說擡頭" 根據가어듸잇나 ②

申泰翊

그러면高橋藏相은어되까지赤字公債漸減의主義만을고 나아가는가 함에 잇서는 그런것도 아니다 民力의 涵養이 進行되고잇는마큼 增稅를 斷行할은그時期가 尙早라고 말하지만 一面으로는 健全財政으로 도라설好機를 엿보고 잇서서 公債漸減主義를 表明하엿다 그럼으로 이것만으로 從來와가튼 積極的赤字公債主義가 相當히 緩和된것으로 볼수가 잇다 이와가튼 赤字公債의 漸減主義는 어떠한 內容을 보이는가 卽 明年度豫算에 잇서서 一般會計의 公債發行額은 六億八千萬圓으로 前年度에 比하면 約八千萬圓減의 數字이다 이것을 보아서 藤井藏相以來 大藏省當局이 健全財政을 目標로하고 赤字公債의減縮에 얼마큼이나 熱誠하고 잇슴을 엿볼수잇지 안흔가 생각한다

×

그러나 以上의程度로는 到底히 健全財政으로 도라서게 됨을 期키어려웁다 왜 그런가하면 이에잇서는、두가지의 疑點이 잇는때문이다

▲첫재로 明年度公債發行의 減縮을 들지만 이것은 實際에잇서 그처럼 줄게될는지 疑問의點이잇다 卽明年度豫算上 經常歲入에잇서 前年度보다 約一億一千六百萬圓의 增收를 計上하고 그中租稅收入이 約九千六百萬圓의 增收에 達한다 그럼으로 果然明年度에잇서 그 自然增收를 보게될가 마약 增收가 못될境遇에는 追加豫算으로 그財源은 亦是 公債에 依할수밧게 업슬것이라고한다

×

▲둘재로는 公債漸減方針을 表明하엿슴을 不拘하고 明年度廿二億七千二百萬圓은 實際에잇서 最大豫算이엇든 昭和八年度廿三億九百萬圓을 超越하는 財政史上 처음보는 最大豫算으로 되나는點이다 卽 昭和八年度豫算에는 通信事業特別會計約二億圓이 包括되어 잇섯스나 昭和九年度 豫算으로부터 獨立되엿슴 이것을昨年度豫算廿二億七千餘萬圓에合한다하면 結局 明年度豫算이 最大記錄으로 되고만다 그럼으로 오늘에잇서 高橋藏相의 財政政策은 赤字公債을 漸縮하라고하는 微溫的方針을 取하지만 實際에잇서는 容易히 그實績을 못보는 困難한 處地에잇다 이것은 무슨까닭인가하면 무엇보다도 軍事費豫算이 到底히 減縮을 보게될 可望이 안보이는데 큰 理由가 잇고 이에 對한 實例를 보면 다음과 갓다 (以下單位百萬圓)

	軍事費豫算	比前年度增加
昭和六年	四五〇(決算)	—
同 七年	六八六	二三六
同 八年	八五三	一六七
同 九年	九四一	八八
同 一〇年	一、〇二三	八二
同 一一年	一、〇五九	三六

以上과 가티 軍事費는 年年 늘어가는 趨勢임에 잇다 그래서 赤字公債의 減縮에는 먼저 軍事費의 減少를 보아야만 될일인데 이곳에 敢히 손을 못대이게되는마큼 自然 그 赤字公債의 減縮도 如意히 進行못되는것이라고 볼수가잇다

×

이처럼 軍事費의減縮이 當分 可望이 업다고하면 차라리 新財源으로 增稅를 하여서라도 赤字公債의減縮을 圖하는것이 어떠하냐고한다 그러나 高橋藏相은 이것을 避한다 이에對한理由로 「日本經濟界의現狀은 그根幹를 북도두어 繁榮을 圖할때로서 아즉 一般的增稅計劃을 세울時期에 안임호랏다」고 든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昭和七年으로부터 시작된 인플레景氣가 아즉도 一般的으로 完全히 均霑되지못한만 큼 만약 이때에 增稅를 斷行한다고하면 景氣의 反動이 急來케될念慮가 잇다는말이다 그러나 오늘에잇서 高橋藏相이 增稅를 避하고 一面으로 赤字公債의減縮에 積極的으로 손을 못대이는것은 以上의理由만으로因한것이아니라 그보다도 달은 큰 理由가 잇지안흔가 생각한다(續)

硫安問題裡面策動不息 其間市價昂上 朝窒이畢竟自白 朝鮮內配給을朝窒에一任하면 "市勢를싸게하겟다"

朝鮮의 硫安配給과 價格公正化에對하야는 今年과가티 朝鮮內市勢가 判然이오 配給이不圓滑한때문에 總督府는 獨占會社인 朝鮮窒素窒制策을 講究하는等外安輸入其他, 所謂肥料騷動을 惹起하야 重大社會問題化한것은屢報와가튼데 今回硫安問題에 對하야 野口朝窒社長은 朝鮮內供給을 朝窒에一任하면 價格도日本內地同價乃至 그以下로 責任을가지고 供給하겟다는 意思表示를하얏다한다 이는即朝鮮窒素가 興南에 工場을가지고 朝鮮內需要를 充分히 同工場能力으로써 充當할수잇는데 總督府의金肥共同 購入方針等에依하야 그一部를 日本內地及 海外에求하는데 不滿을가지고 朝窒이無理히市價를 昂上하얏던것을 自白하는것이라고볼수 잇다

朝窒의一任主張에 農林局長同意見 獨占橫暴防止不能?

硫安의市價公正、供給圓滑의根本的方策을 講究할것이 急務인것은 다시말할것이업는데 그方策으로서 朝鮮의 硫安供給을 朝窒에 一任할時는 朝窒의完全한 獨占的橫暴를 막을수업서 더욱 農村에 重大한影響을주것다 野口朝窒社長의 意見에對하야 矢島農林局長도 同意見이라는말이 잇서 一層 今後推移를 注目코잇는터이다 朝窒에게 供給을一任한後 總督府가 얼마나 監督할수잇슬는지 큰疑問이다

朝窒配給圓滑圖謀

朝鮮窒素에서는春肥實需期가例年配給不圓滑로 品薄市勢를示現함에鑑하야 今年은自營倉庫(四千五百叺) 借庫(四千八百叺)合計九千三百叺에 一月末四萬叺의在庫를備하얏는데 二月以降出荷에備하야 二月中은鐵道局과交涉한結果 海送一萬五千叺 陸送二萬四千叺 合計三萬九千叺를出荷할豫定이든바 鐵道局의配車計劃으로 二月中의 鐵道出荷二萬四千叺 이外更히九千叺를增加하야 配給圓滑을圖하기로되엇다한다

外安輸入은 結局二千叺 四月中旬入荷量

朝鮮向追加輸入硫安一萬叺中 八千叺은 需用期에 輸入困難임으로 이것을 中止하고 二千叺만 輸入하기로되엇스나 右二千叺은 四月十五日頃 朝鮮에移入키로되엇다

硫安高價로 農民二重搾取 輸入外安追加問題로 農省●配組對立硬化

【東京電話同盟】 外安 一萬叺追加輸入을 朝鮮側이 取消하고이에關聯하야 日本內地에서도 配給組合이 一萬叺追加輸入을 하지마려는 方策을 取하고잇는데 對하야 農林省의 態度는 依然强固하야저서 兩者의 對立이激化되고잇는바 農林當局은 어데까지든지 當初의方針을 堅持하야 二萬叺의 追加輸入은勿論第三次輸入을 從源할方針下에 配給組合에 對하야 嚴重한 監視를繼續하고 잇는터이며 農林省의主張하는바는 如左하다

一、外安追加輸入價格이 맛지안는것은 當時昂騰한 內安價格을 標準으로한 不當한高價가 原因이되다

二、一月初의 市價는 叺當 百二十八圓이든것이 十三日에는 百二十二圓六十七錢으로 低落하기는하얏스나 叺當 百二十圓台는 依然 不當한 高價이다

一、最近의 市價低落은 大雪에 依한 一時的需要減退와 總選擧로因한 取引減少에 基因한것으로供給過剩이 原因이되는것은아니다 그러고 三、四月의 實需期에 드러가면 다시昂騰步調로 轉할것은 必至이어서 外安輸入의 必要는絕對로 解除되는것이아니다 또 農林省側은 需給關係에對하야는 依然不足의 見解를가지고 二月中의 實績을 본뒤에 다시 第三次 追加輸入을 行할 方針을 取하리라는데 問題는 單只 需供關係의 調節에 그치지안코 輸入價格을現在의 不當한 高價로서는 外安側에利益을주는 것이다하며 需要者인 農民을 二重으로 搾取하는 結果가된다고하야 이點에關하야 配給組合의 注意를 喚起할 方針이라한다

朝鮮米運賃協議 十五日東京에서

京濱의 受荷主招請에 依한朝鮮米運賃과 輸送에 關한 協議會는 朝鮮內 出荷主 釜山、木浦、群山、仁川、鎭南浦、海州의 各荷主代表와 關係船會社代表가出席하고 協議하엿는데 第一日은 何等 具體的協議에 안드러가고 散會하엿는데 十五日도 續行中이라고 朝鮮郵船에 入電이잇섯다고한다

北朝鮮經由 特定新運賃設定 滿洲鐵路局에서

【奉天十四日發電通】 昨年 六月 設定된 北朝鮮三港經由 北滿方面間 輸入貨物特定運賃을定하엿스나 大連經由에 比하야 日本海新經路利用의 目的을 達할수업는狀態에잇슴으로 鐵路局은 이번에 北朝鮮 經由輸入貨物의 特定新運賃을 設定하고 二月十五日로부터 暫定的으로實施하고 北朝鮮三港이 中繼港으로 整備될때에 다시公正한 運賃政策을 세우기로되엇다

朝銀券續收縮

十五日經過의朝銀券發行高는 一億七千四百七十六萬圓으로 收縮一途인데 諸貸金回收와 新規貸出激減 預金增加等 金融緩漫情勢를 反映한것으로 今後도三月頃까지更히 二百萬圓前後의 縮少가豫想된다

中國을舞臺로 『日獨戰』出現 鹽素酸加里對中輸出

【東京電話同盟】 석냥原料 鹽素酸加里는 月產五百噸을 輸出하는바 最近 北中進出의 機運이 促進되야 各生産會社도 相當히 生産擴充을 企圖하고 中國市場을 獨占하고잇는 獨逸側은 五十瓩一箱五十圓內外로 每月三百噸을 販賣하고 日本側은 十九圓으로 輸出하라는것인데 結局 日獨戰이 나타나 그趨勢가 注目되는터이라고

中銀에『이어마크』는 "弗"一種自衛策 米國財政技術家解釋

【華盛頓十四日發電通】 華盛頓의 財政技術家側에서는 米國財務省이 中國의 幣制改革援助로銀을사고 金을팔어 差額을 紐育諸銀行에 預金케한 事實은 차라리 一種의 弗自衛策으로도有效하다고 解釋된다 即 中國이 財政的으로 英國과의 關係를깁게하고 이미 스타링블럭에 드러가라고한다 三千二百萬弗이라는 多額의 預金을 뉴욕銀行이 中國으로부터預託하면스타링블럭의 深入을 牽制하야 弗과 磅과의關係를 强化하야 이弗과 磅과의 爲替戰에잇서서 弗에한便이 피게하라는것이라는 見解를 가진다 財政省은 限定的見地上 차라리 以上의 經濟的見地로 現行政策을 繼行하라라는 豫想이 만흔터이라고한다

昨年下半期 朝鮮經濟 加藤朝銀總裁報告

朝鮮銀行 第五十三回 通常株主總會席上 加藤總裁의 演述은 如左하다。

朝鮮의 一般産業은 最近 顯著히 發展狀態인 同時에 農村經濟는 漸次 面目을 곳치엇고 對外貿易은 去益好調에 赴하고 一般財界는 未曾有의 好況裡에 終始하얏다。二三重要統計에 基하야 其狀態를 보면 米收穫豫想高는 一千七百八十五萬石에 達하야 前年實收高에 比하야 百十四萬石增加일뿐 아니라 日本內地不作에 因한 米價高로 取引이 活氣를 帶하고 當期中의 朝鮮米 輸移出高는 四百萬石을 算하얏다 粟과 大豆와는 平年作을 豫想하나 麥의 實收高는 一千一百三十一萬石에 達하고 前年에 比하야 一割七分의 增收를 告하얏스며 棉花 收穫豫想高는 一億九千八百萬斤에 達하야 前年보다 二割八分의 增加를豫想하는一方 蠶繭은 增收이오 此等生産物의 時價一齊强調임으로 當期中의 繰綿、繭、生絲等의 移出高는모다 著增을 告하는中이다。

다음으로 鑛業界에잇서는 金鑛業은 依然旺盛하고 産金高가 著增되고 石炭은朝鮮內消費와移出과의 增大에 因하야 産炭이急增의 勢이오 黑鉛、鐵、銅等의生産도모다增加된結果、當期中主要鑛産物의輸移出高는 三千四百萬圓에達하고 前年同期에比하야 一千百萬圓의增加를示한 狀態이다 또水産界는 鰮의近年稀有한豐漁와魚油의昂騰等에 依하야 水産物의 加工業이繼出하고 異常한 好況을呈하얏다。

轉하야 事業界의 狀況을보면 前期以來纖工業의 異常한發展에 基하야 當期中의新設擴張에屬한 會社는三百七十一、此資本九千八百四十五萬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면 社數百六十二 資本七千六十萬圓의 激增을告한 狀態이다 一方日本內地當業者의 進出에依한 大規模工業은 朝鮮內各地에 簇簇出現함으로써 朝鮮의工業은 一段進展되리라고 信한다。

當期中의 朝鮮貿易은 輸移出二億八千三百萬圓、輸移入三億五千萬圓에達하야 前年同期에 比하면 輸移出三千三百萬圓、輸移入七千百萬圓各增加를示하고 全年通計에잇서는 輸移出五億五千萬圓、輸移入六億五千九百萬圓으로 前年에比하면 輸移出八千五百萬圓 輸移入一億四千萬圓의 各激增이오 此間對滿貿易은 繼續好調로써、昨年中의輸出은 五千八百萬圓、輸入은五千三百萬圓으로 前年에比하면 모다增加되어其貿易結果는 倍良化의實을示하얏다。

一般金融界는 前期同樣大勢緩慢裡에 終始하고 當期末의 朝鮮內同業者의 預金은 三億三千萬圓 貸出은 六億一千萬圓에達하야 前年同期에 比하면 預金五千三百萬圓 貸出七千七百萬圓의 各增加이오 郵便貯金도當期末現在五千二百萬圓에 達하야前年同期末에 比하면 五百萬圓以上의 增加를 示한狀態이다

要컨대 最近朝鮮의經濟界는米棉其他農産物의 市價强調에 伴하야 農村經濟는漸次充實하는同時에 鑛工業은 異常한 活氣를 呈하고 朝鮮貿易은 未曾有의盛況을 告하야 一般經濟界는 益益 堅實한 發展을하는中이다(續)

鰮粕協定 繼續會議 依然意見이區區

鰮粕協定에對한 生産者側의 協議會는 十五日 水産會館에서繼續中인바 亦是 期間、相對會社 手數料問題를 둘러싸고 各道의 意見이 區區하야 解決이 遼遠한모양인데 一面으로 買收側 三菱、三井、日食、全合聯等의 參加運動도 猛烈하야 그前途가注目되는터이라고한다

米日爲替反騰

【京城十四日發同盟】 十四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illegible]

朝銀定期總會 四分配當案可決

朝鮮銀行의 第五十三回 定時總會는 十五日 午前十時부터 東京支店에서 開催하고

一、第五十三期營業報告 其他諸決算案承認件

二、第五十三期利益金分配件

三、監事一名缺員에 後任者選擧件

四、監事伊藤紀兵衛氏死去에對한 弔慰金贈呈件

을 附議하야 利益金處分案을可決하엿다 (單位圓)

當期總益金	二〇、九二二、〇一〇
當期總損金	一九、九八四、〇七七
差引	九三七、九三三
外	
前期繰越金	二一九、六七〇
合計	一、一五七、六〇四
▲其中	
損失補塡準備金	一五〇、〇〇〇
配當平均準備金	一〇〇、〇〇〇
役員賞與金及交際費	[illegible]
舊株配當並(年四分)(政府持株除き)	一萬五千 [illegible]
新株配當並(年四分)	一〇〇、〇〇〇
後期繰越金	三三一、六〇四

監事補選은西脇濟三郎氏(新潟西脇銀行頭取)가選任되엇다

日銀一割配當

【東京電話同盟】 日本銀行에서는 十五日 株主總會를開하고 下半期配當年一割据置를附議可決하얏다。

三井銀行總會

【東京電話同盟】 三井銀行은 三月二日定期株主總會를 열고 十年下期利益金處分案(年八分据置)을 附議決定할터이라고

爲替受拂

全朝鮮郵便局所에서 取扱한 一月中內國郵便爲替의 振出件數는 四十三萬二千九百六十件 金額千四百十八萬四千四百五十八圓 또拂渡件數는四十二萬七千七百五十八件金額一千四百五十三萬七百二十八圓이라고

取引停止

▲東大門市場六六番地 陸物産貿易及委託販賣 京一商會 ▲黃金町三丁目二九八番地 土木建築請負業 山田庄治 ▲高陽郡崇仁面新設里二五九番地李成俊

富寧水力電氣認可

東拓에서는 總督府의 電氣統制計劃에 準據하야 資本金一千萬圓(四分一拂込)의 富寧水力電氣會社를 創設하고 拓務省의 認可도 되엇슴으로 遞信局에 對하야 水利使用과 電氣事業經營認可申請을 提出하엿는데 不遠認可가 잇슬모양임으로 同時에着工키로 되엇다고한다

爲替

▲東京爲替(十五日) 對米 賣 二十九弗八分一 買 二十九弗四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一 買 一志二片 ▲大阪爲替(十五日) 對米 賣 廿九弗十六分一 買 廿九弗十六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卅二分一

今日財界 (十五日)

◆米 (單位圓) 仁川玄米 先限 二九・三 反落 大阪期米 先限 三三・二 不變 ⑨三等米 一石 (二六・八〇) 正租(仁川)一等 一斤價三等

◆市中金銀價 金 十二圓六十五錢 銀 九十錢

◆株 朝新 東新 日産 ◆商品 大阪綿絲 大阪棉花 大阪人絹 大阪砂糖 고무現 [illegible]

經濟界消息

○全朝鮮商議聯合會 第六回全朝鮮商工會議所聯合協議會는 四月十六、十七의 兩日間 大邱商工會議所에서 열기로 되엇다고。

商況(十五日) 株式 一段高나 反弛

前場少波瀾

今前場은 休日을 압둔 中日立會인바 鐘新 百六十圓으로 暴騰에 伴하야 東新이 百六十四圓三十錢 新價에 昂進되어 買人氣이엇스나 阪東不勢로 伸惱하야 結局 昨後引보다 十錢低인 百六十三圓三十錢 大新十錢高인 九十三圓五十錢 日産十錢低인 七十四圓丁 日産新三十錢低인 二十一圓十錢 新一圓高인 百六十四圓丁 朝新十錢高인 二十九圓九十錢 日鐵新三十八圓丁에 各大引

後場休會

後場은 土曜로例休인데 大阪短期氣配不變으로當地도 氣配保合이오 來週初를期待하얏다

東新또反新價 取組念慮不要說

東新은 米國의好調를 動機로上向되어 當地今前場은 百六十四圓三十錢의 또 反新價를 示하얏다가 다시 三圓三十錢으로反落大引되어 依然强한市勢가 아니오 弱氣에 傾키쉬운情勢인데 이弱氣的 根據는 무엇인가? 第一은 玉整理不完全、取組減少難에잇는듯한데 弱取組가減少치안는가 그것을立證할 方法이 업지만 大體로 一、有資力側의 大玉이 蟠居하기때문에 當通이 面投하고 踏할것이 小市勢로보아 不動인것 二、小市勢觀으로 他株와의 保險的賣買對象에만하자이는것 三、小市勢擴으로 兩建主義가增加되는것 等을擧할수 잇는바 事情이如斯한마큼 三十七、八株의 取組가비록 量으만치만 別로 걱정할것이업다는說도잇다

强氣의大勢觀 大活動을期待

雜株買旺盛이오 氣株에도 飛火할 形勢가 잇서 高位置가 反動을 招來하리라는 警戒論이잇合에 對하야 如左한 根據下에 內外情勢에 急變이 업는限 證券界大活動이 今後에 잇다는 大局的强氣觀이 잇다。

먼저軍工業方面을보면 世界軍擴 日本軍擴時代는 來年부터의 일로 代艦建造、新規艦艇建造는絕對不可避이오 陸軍도 對蘇作戰上軍擴大要求가잇슬것이오 財政도 軍擴不可避의限 增稅는 來年의 問題가아니다。 十億의 軍費가十二億 十三億의 軍備로되는때에 增稅를 하드래도 赤字는 減치 안흘것이다。 農村도 悲觀할것이 아닌슈 以上諸點으로보아 證券市價는 反落이잇다드래 單純한 人氣的市勢이겟고 大勢를 基調로하는限 前途悲觀不要이

時局株再活躍

○大體 進出할것이다云云 重工業中心時局關係株는 高價圈 通過後一段下押이고 最近再强調를 呈하는데 軍縮決裂、英米軍擴豫算膨脹、日獨의 必然的運命等에 徵하드래도 日本도 軍備擴充을 期할것인바 軍需工業이라지만 實際로 直接 軍部納入은 全生産高의 二割以下이오 間接的利益이크다。 이제 東京株式取引所長期上場 株中 軍需株로볼것의 推移를 先限에依하야보면 如左하다。(單位十錢)

銘柄	一月高價	今年低價	最近	利回
日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市場六感

株 鐘新에 買氣再燃되어 百六十圓關門恢復의 暴騰에伴하야 東新도 百六十四圓三十錢新價로 買人氣이엇스나 反賣物不絕로 다시三圓安로 밋그러젓다▲東新에는一、投機株時代가아닌것 二、玉整理不徹底의두가지로 弱氣觀이적은것이 事實이오 이대로는 決코시원스럽게 올는지못할것이라는말이 잇고 그러타한이지만▲株界大勢는 一、軍擴不可避 二、增稅는언슬것 三、財界實勢良好의세가지로 前途大活動이 期待되는

米 一時結氷으로하야 杜絕되엿든 穀物이 稍漸現出하는모양이나 忠淸道一部의 賣出에不過할뿐이오 黃海道方面의船便은 아즉도 流水으로阻止된모양▲流水으로하여 나오지못하는 穀物은 結局解氷後에나온다하려니와 農家의 賣惜方針이 依然變치안는다하면春間의瓦落은期待키難한걸▲硬派는 待되는限 아모리말성만흔東新이라도 結局에는 總花的活躍이잇고야말것이라는 大局論을首肯한다면 目前的東新伸惱를그대지 掛念할것이업다는 强氣觀이잇는모양

아즉出廻稀薄 流水의關係로

日本內地는 大降雪 朝鮮은酷寒의結氷으로 一時産地出廻가稀薄하야 米價의 昂騰을招致하여왓스나其後日氣의 稍히溫暖으로解氷되어 正米入津이多少잇는모양이나 忠淸道一部의 賣物에 不過하고 黃海道方面에 積滯되어잇는것은 아즉도流水으로 積船되지못하는 光景이다 結氷이完全히풀닌後부터는 當港의入津도相當히이잇슬모양으로 定期市場도 一段低落이잇슬것으로 豫想하고 連日 伸惱의 狀態를 呈하는모양이다 果然解氷後의 廻着이多할지 안흘지此가 問題인데 農家가 아무리 賣惜한다 할지라도 換金의 關係上 逐次現出될것을 豫期할수잇스며又는 實物이現出한다할지라도 一時에 轉하지안코 平均的으로賣出되기가 十常八九일것임으로 結局은

期米 中限臺割 漸落

前場少弛

昨後場阪地二十九圓二十一錢에場을止와共히 二十九圓三十一錢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三十八錢인二十丁反落을報하고 二十九圓十九錢인二十丁低로寄始한後 阪地四十錢까지 小反하엿다가 三十七錢에 止場함을伴하야 二十錢의一丁高를示한後 十六錢의最低로 場을止하엿다

後場低下

後場은 二十九圓十五錢에 一丁低로 始場後四節中限二十九圓뿐이오 先限十二錢에 떠러지고 十二錢에止場하엿다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 賣氣不振인데다가 休日을압두고 今朝의市況은 買方傍觀이오 極히不活潑이엇다

實物前場取引

(◆印配當落●印拂込)

▲大阪商船 五四、五〇 ▲日本郵船 五七、五〇 ▲大阪瓦斯 九六、八〇 ▲滿洲電業 ▲朝鮮石油 一三〇 ▲帝國人絹 一六九、〇 ▲富士製紙 一四二、〇 ▲王子製紙 ▲北海道炭礦 一九四〇 (取引高一六〇枚)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賣方 ▲買方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 便乘賣方共히 新勤機待로 氣乘薄이오 極度로 積極性이업다 前場三錢幅으로 小浮動하얏슴에 不過하다 賣方=朝鮮側、東京側、中東側 正米側 買方=地場北國側、東京側、別派

農家態度注目

大瓦落은 期待키難한것가타 朝鮮農村에 搬出되어잇는米穀이 昨年同期보다 減少한것을 當然히어느程度의 瓦落을 免치못할것이 그러나 農家의 態度가 此후에 있어서 賣惜하는 農民이 米價의今後大勢도 如何히 展開될가함이 疑問이다 此에對하야 强氣派의 說을綜合하여보면 軟派는 完全히 解氷된後에는 農家의換金穀物이現出하야 米界의實勢는 加일 여고한다 昨今 大農家의 穀物의 需給作用을보면 中農以下의 換金米이 도움며 겨자먹기로 春間의一落이 어 現出할것임으로 自然히 瓦落을 免치못할것이라하며 此에 反하야 本年은 二重凶作의後임으로 米穀境期의 需給關係를 잇지못할것이다 그러고 本會米는 乾燥가 良好하야 持賣키될것이 함지라도 後想과如한 投賣가업슬 것임으로 春暖期에 入하면 다시 農家의 賣物이 賣出할일이 라고한다 果如何?

各地正米

京城不變

期米의 不動狀態로 氣迷가 深하고 極度의閑散場面을 呈하야 丸仁 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 二十八圓六十錢 一等白米 二十一圓五十錢

仁川保合

定期의 保付로 日本內地가 買치안흠으로 移出向

釜山少弱

定期의 不活潑을 보고 買氣極히 積極性이 乏하고 休日을압두고 賣物이 少하야 市況이 少弱하고 取引高 百四十叺 角フ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六錢

大邱閑散

新味가乏한 清算을보고 賣方共히 模樣眺로 市中取引은 殆無의閑散場面이엇다 角フ三等二十八圓三十錢 一等 四等二十八圓六十錢 白米十一圓七十五錢

群山不勢

貯藏米의市場出回는 殆無이오 極히 氣迷가濃厚하야 市中取引은 殆無의閑散 角フ三等二十八圓九十錢 一等 八十五錢 四等二十八圓二十八錢

木浦弱含

産地賣物漸增豫想이오 氣配는 弱含으로 市中取引은 僅少 小口의補充取引이渗續되에 不過하다 丸木三等二十九圓三十錢 四等二十八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金・白金・銀 德 京城德力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御送料先金 京城府明治町

金融 十五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十五日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十五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綿布 ◆鑛油冲價 ◆日本麥粉市勢 ◆鰊粕冲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十五日

◆朝取短期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十五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鮮內各地期米 ◆東京短期取組 ◆東京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短期氣配 ◆大阪長期 ◆東京期米 ◆大阪期米 ◆大阪正米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級) [illegible]

商品 十五日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外砂糖 ◆시카고期米 [illegible]